대북지원을 통한 목회적돌봄과 치유사역에 관한 연구

STUDY ON SUPPORT TO NORTH KOREA THROUGH THE MINISTRY OF PASTORAL CARE AND HEALING

BY

YOO, KI NAM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Seoul, Korea

2014

This is certify that the
Demonstration Project entitled

대북지원을 통한 목회적돌봄과 치유사역에 관한 연구

STUDY ON SUPPORT TO NORTH KOREA THROUGH THE MINISTRY OF PASTORAL CARE AND HEALING

presented by

Yoo, Ki Nam

has been accepted towards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____
Academic Dean's Signature

____
Director for D. Min Program's Signature

____
May 2014

NYTS is an Affirmative Action/Equal Opportunity Institution

ABSTRACT

Study on Support to North Korea through The Ministry of Pastoral Care And Healing

by

Yoo, Ki Nam

How can we speak about God without assuming that God is nothing but our own speaking, nothing but our Pastoral Care's effort to name what cannot be named? How can we deny that our speaking of God is always taking care of us? To answer these questions, we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what we mean by Care And Healing, and how we use this very complex term both in our everyday language and especially in the language of faith. The Ministry of Pastoral Care And Healing is an exceedingly complex term that nearly everyone uses, but no one is sure what it means. This work examines various uses of the term Ministry in theology today.

No generation can frame a scheme of doctrine which should justly limit the belief and teaching of succeeding centuries. Each period, each generation, each body of believers may and in some sense must formulate a theology for itself. I was understanding some theology through the practice of Pastoral Care and healing. Of course, I looked around the church tradition.

First, the incarnate ministry. A church should undertake an incarnate ministry breaking into the world. A church should break into the world, since Jesus Christ came down and worked in the world.

Second, the messianic spirituality. The problem of a traditional church is caused by dualistic thought. A traditional church is far from the world. I suggest the messianic

spirituality for overcoming this problem.

Third, the apostolic leadership. A church should have leadership for the world. This apostolic leadership is not vertical. This means the multiple leadership, that is indistinguishable between a layman from a pastor. So this makes a holy community aiming at the kingdom of God.

Fourth, a stewardship. A community service of a church is a serving ministry. The ministry of Jesus, who give all his things to the world, was like that. A life of a disciple, who follows Jesus, is a life of a stewardship.

In this theological foundation, after a closer look at the prophetic ministry in North Korea, for the North Korean people for caring and healing ministry of practical approaches. Above all they need is bread. According to Dr. T. Niles,"Evangelism is one bagger telling another bagger, Where to fine bread." Through this study, it is necessary above all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o resolve the problem, it is imperative that the bread that says.

Where did servant leadership really get started? It comes from That Jesus Christ is a Servant Leadership.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your slave"(Matthew20:26,27) What is a Servant?: "The job of a servant is to do all he can to make life better for others to free them to be everything they can be" Another way of saying this is that a servant is committed to making others successful. Servant Leadership: "One who leads in the style of Jesus does not use forms of coercion, nor does he depend on institutional position for authority. Instead, by serving people, he leads as they recognize his ability and choose voluntarily to follow.

The purpose of these studies are among the elements with an emphasis on positive emotional touch, to solve Care and Healing in the church since the move towards a sense of belonging and intimacy. It is easy to criticize North Korean regime, but that does not solve North Korean people's food problem.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refrain from behaviours attempting to rely on humanitarian assistances as means for achieving political purposes and should make efforts to search for the concrete and systematic ways of dialogue and cooperation in order to guarantee North Korean people's right to food. While the international coummunity is feeling fatigueness regarding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it is the basic respon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guarantee the right to survival of North Koran people, as the basis human rights.

ACKNOWLEDGEMENTS

제 자신의 사역에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북이 나뉘어진 60년이 지난 지금도 아픔과 반복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역에 눈을 뜨게하시고 또한 감담해 오게 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었음을 봅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동안 해온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을 보듬어 그들에게 돌봄과 치유를 해야함을 다시금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NYTS의 Dr.Dale T. Irvin 총장님과 본 프로젝트 연구를 위해서 친절과 정성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백창건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부하는 동안 늘 기도하시면서 지혜들을 모아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겨레사랑 동역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외롭고 힘든 과정에도 묵묵히 기도하며 공부를 끝까지 마치도록 사랑으로 내조 해준 아내와 아빠의 부족함을 기쁨으로 채워준 아들 딸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운데 뉴욕신학대학에서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함이었으며, 사랑과 나눔과 협력과 섬김이었습니다. 이 귀한 사랑들과 시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2014년 5월　겨레사랑 사무실에서

유 기남

목　차(Table of Contents)

표 차례

그림 차례

Ⅰ. 배경(Introduction to Setting)

1. 지역적 배경

우리나라 국토는 아시아 대륙의 동북부에서 남으로 튀어나온 한반도와 크고 작은3,900여 개의 부속도서 및 대륙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과 남쪽은 동해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 열도와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과 북쪽은 황해와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대륙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방과 접하고 있다.

<그림1> 북한지역지도

북한은 1953년 7월의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 221,336㎢의 55%인 122,762㎢이다. 이 지역은 경도 및 위도상으로 볼 때 동단 동경 130도 41분 31초(함경북도 선봉군 우암리), 서단 동경 124도 10분 47초(평안북도 용천군 비단섬 노동지구), 남단 북위 37도 41분 0초(황해남도 강령군 동암리), 북단 북위 43도 00분 36초(함경북도 은성군 풍서리)이다. 북한지역의 해안선은 2495Km이며, 국경선은 중국과 1360Km, 러시아와 16.5Km를 접하고 있어 총 1376.5Km이다. 지형은 북부와 동부가 높고 서해안과 남해안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고 동고 서 저의 형세이며, 전체 면적의 약 8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지역에는 2000m 이상 되는 산이 약 60여 개에 달한다.[1] 기후는 북 온대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온화하여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하다. 연중 평균기온은 8~12㎢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1000mm이고 이중에서 50~60%는 6~8월의 3개월 사이에 내린다. 최근에는 한 냉 전선의 영향으로 장마현상이 없어지고 가뭄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 인구는 1944년 1,004만 명이었으며, 1953년 850만 명까지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는 2,419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난의 행군기(1996~2000)에 식량난으로 인해 출산율은 급감했지만 가임 여성 인구가 많아 출생아 수(5년간 총 198만 명)는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으며, 2008년 5세 이상 인구(2,234만 명) 중 24.1%(539만 명)가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이다.[2] 그리고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전체 인구는 24,325,701명이고, 그중에 남자인구는 11,783,637인 반면에 여자인구는 12,542,064명으로 여자인구가 758,427명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남북평화통일연구소, *오늘의 북한*(서울: 남북평화통일연구소, 1988), 10.

[2]통계청, *북한 인구와 인구 센서스 분석*(통계청: 2011년3월22일 보도자료), 1.

<그림2> 북한인구통계

Midyear Population by Age and Sex 5-Year Age Groups - UN - Asia - Korea, North

Year	Age	Both Sexes Population	Male Population	Female Population	Percent Both Sexes	Percent Male	Percent Female	Sex Ratio
2010	Total	24,325,701	11,783,637	12,542,064	100.0	100.0	100.0	94.0
2010	0-4	1,735,015	882,279	852,736	7.1	7.5	6.8	103.5
2010	5-9	1,842,535	932,415	910,120	7.6	7.9	7.3	102.4
2010	10-14	1,957,188	983,684	973,504	8.0	8.3	7.8	101.0
2010	15-19	2,086,310	1,060,539	1,025,771	8.6	9.0	8.2	103.4
2010	20-24	1,923,766	982,891	940,875	7.9	8.3	7.5	104.5
2010	25-29	1,767,408	896,880	870,528	7.3	7.6	6.9	103.0
2010	30-34	1,596,977	803,110	793,867	6.6	6.8	6.3	101.2
2010	35-39	2,014,518	1,005,768	1,008,750	8.3	8.5	8.0	99.7
2010	40-44	2,180,795	1,092,629	1,088,166	9.0	9.3	8.7	100.4
2010	45-49	1,677,211	829,593	847,618	6.9	7.0	6.8	97.9
2010	50-54	1,452,063	702,526	749,537	6.0	6.0	6.0	93.7
2010	55-59	860,567	410,555	450,012	3.5	3.5	3.6	91.2
2010	60-64	1,080,625	494,352	586,273	4.4	4.2	4.7	84.3
2010	65-69	879,289	365,016	514,273	3.6	3.1	4.1	71.0
2010	70-74	657,620	225,351	432,269	2.7	1.9	3.4	52.1
2010	75-79	371,193	87,383	283,810	1.5	0.7	2.3	30.8
2010	80-84	170,851	23,967	146,884	0.7	0.2	1.2	16.3
2010	85-89	59,282	4,271	55,011	0.2	0.0	0.4	7.8
2010	90-94	11,295	408	10,887	0.0	0.0	0.1	3.7
2010	95-99	1,150	20	1,130	0.0	0.0	0.0	1.8
2010	100+	43	0	43	0.0	0.0	0.0	0.0
2010	Median Age	32.7	31.0	34.4				

Source: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ata Base

북한의 문화는 구조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구조적 특징을 보면 첫째, 항상 정치적 목적과 결부된 집단주의 성격을 들 수 있다.

둘째, 폐쇄적 문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바깥 세계에서 오는 이질적인 가치가 사회내부에 침투하여 정착할 수 없도록 경계하고, 서구 문물의 유입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

셋째, 북한의 문화구조는 단선적이고 획일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는 공통적인 영역이 매우 넓다. 이것은 전체주의적 체제의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문화구조가 그만큼 단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문화구조가 타율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문화구조는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좌우되며, 모든 문화활동은 국가의 지도 밑에 이뤄진다. 그런 이유로 북한의 문화구조는 획일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교회적 배경

1884년 만주에서 선교를 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Jhon Ross)목사와 맥킨타이어(Jhone Mckntyre)목사와 함께 성경을 번역한 서상륜이 황해도 송내에 교회를 세운 것이 한국교회의 시작이요, 북한교회의 출발이라 하겠다.[3]

북한지역은 전통적으로 종교의식이 강했고 불교의 유명한 사찰들이 많이 있었으며 기독교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며, 최초의 선교지인 평양을 중심으로 많은 교회가 있었다. 북한에서의 기독교 흥왕함을 민경배는 "전국 교세의 3분의2가 서북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4] 그런 기독교가 8.15 해방을 맞으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 공식적, 표면적으로는 모든 종교가 사라진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한 무신론 국가가 되었다.[5] 그러나 북한은 기독교를 먼저 수용, 발흥시킨 지역이다. 해방 당시 북한 지역에는 대략 20만 명의 개신교인이 존재했다. 개신교인 가운데 장로교인이 약 16만9천여 명, 감리교인이 약 1만8천9백 명, 기타 교파 교인들이 1만 천 명을 점했다.[6] 1946년 8월북한 인구 915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개신교인은 전체 인구의 2.2%에 해당되며, 결코 전체인구에 차지하는 비율로는 큰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해방 당시 조직화된 집단 중에는 가장 큰 사회세력이었으며, 특히 개신교는 지식인의 집결지 이기도 했다.[7] 1946년 11월 28일 기독교 연맹이라는 종교단체가 결성되었다. 현재까지 국가의 지도 아래 기독교 연맹이 운영되어지고 있다.[8]

---

[3]민경배, *한국의 기독교회사*(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68), 64.

[4]민경배, *북한의 기독교*(서울: 국토 통일원, 1979), 130.

[5]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서울: 민족문화사, 1988), 16.

[6]김양선, *한국 기독교 해방 100사*(서울: 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원, 1956), 68.

[7]윤경호, *105인 사건과 기독교 수단 한국 기독교와 민중운동*(서울: 보성출판사, 1986), 313.

[8]조성원, *북한의 기독교 실태와 전략*, 26.

1960년대 이후 북한은 완전히 종교부재의 상태가 되었다. 책자나 신문, 잡지를 통해서도 종교라는 용어는 사라지게 되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종교 활동을 교류하기 위해서 1970년대 중반 북한은 기독교 연맹을 통해서 종교 관계 국제회의에 대표들을 출석시켰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서방 기자들이나 종교 관련자들의 방문에 북한에도 종교가 실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노력하였다. 현재 북한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의 뿌리가 남아 있으며 신앙이 3~4대에 걸쳐 전수되어 지하교인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10]

3. 목회적 배경

현재 북한의 어려움은 엄청난 자연재해와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내지 못한 사회 체제의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초기에 북한 어린이 건강 문제의 초점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기아, 영양결핍 등이 문제였으나, 영양부족이 장기화 되고 보건의료체제가 급속히 붕괴하면서 이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질병과 이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던 예방접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위생상태의 저하, 장기간의 영양부족으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 등의 원인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 이를 차단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공중위생 및 보건의료 체계의 미비, 의약산업의 붕괴 등으로 인해 문제는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9]박일룡, *남북통일과 북한교회의 재건*(대전: 침례신학대학교, 1993), 67.

[10]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06814.

<그림3>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어린이[11]

이미 1980년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식량난은 1995년의 장마와 태풍 피해로 극대화 되어 그후 3년간(1995.8 – 1998.7) 이미 350만 명 이상 아사(餓死)하였다. 3년간 250만에서 300만 명의 인구 감소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국제 식량문제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북한 기근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 특히, 북한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앞으로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이 총력을 기울여 치유하여야 할 깊은 상처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고통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여, 그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받도록 노력해야 된다.[12]

---

[11]연합뉴스 기사입력 2005-03-07 17:45, 최종수정 2005-03-07 17:45.

[12]유성준, *세이비어교회*(서울: 평단문화사, 2012), 174.

1997년 4월 북한 당국은 1백34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이 뉴스는 1995년 북한의 큰 수해 이후 그곳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식량원조 전문가들 사이에서 곧 밀어닥칠 대량 아사의 신호탄처럼 여겨졌다. 이른바 '사회주의적 기근'의 전형으로써 이는 특히 위험한 징조였다. 가난한 계층이나 차별받는 소수민족에서 먼저 참혹한 기근을 겪고 그것이 일종의 조기경보장치 역할을 하게 되는 아프리카 등지의 기근과는 달리, 북한은 2천3백 만 전체 인구가 비교적 고르게 식량을 나누어 가면서 그때까지 버텨 웬만한 규모의 식량조달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다. 즉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식량원조가 이루어 진다고 해도 수천 수만 명의 아이들과 노인들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다른 모든 질병이나 재앙과 마찬가지로 대기근 같은 집단적 재앙에 대한 구호활동도 빠를수록 좋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확대되고 심화될 뿐이다. 5세 미만의 북녘어린이들의 문제에 국한시켜 보아도, 피해의 확산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그 규모도 엄청나서 실제로 적절한 대응의 시기를 어떻게 놓쳐 왔는지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병든 자들을 살리는 약품들과 굶어서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을 위한 기아치료제의 생산을 본 연구자는 생각하였다. 그리고 황폐화된 농토를 복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Ⅱ. 시행전략(Sttategy Statement)

1. 목적(Goal)

북한의 왜곡된 세계관의 근원은 한국 전쟁의 피해에서 체험된 상한마음으로 용서 하지 않는 마음에서 근거하여 미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발전 되었다. 상한마음으로서의 적개심은 북한 사회의 발전과 위기로 넘어오면서 더욱 심화 확대되었다. 또한 주체사상을 통한 형성된 세계관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한마음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적개심의 표현양식으로서의 사회적으로 학습된 분노는 개인적인 성품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상한 마음을 전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1987년부터는 “하루 두끼 먹기 운동”을 전개했고 ,1993년부터는 “하루 한끼 먹기 운동”을 벌렸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북한주민 스스로는 살기위해서 자생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인 농민시장이 형성되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2002년 7월 15일 전후하여 농민시장을 폐쇄하는 등 일체의 사적인 매매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13] 1990년대의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어려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불안의 격동기였다. 그러나 문제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식유통망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속은 오히려 암시장을 더욱 음성화하는 결과만 초래한다.[14] 이러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공급과 결핍경험은 삶의 악착성의 증가와 반면에 내면에 상실과 좌절과 울분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

[13]전현준 외, *북한 이해의 길잡이*(서울: 박영사,2005), 184.

[14]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209.

더 나아가서는 타 문화 경험을 하며 감정의 혼란과 격노하는 울분 등을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분노는 소극적인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며, 행동하는 분노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북한 사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위 자력갱생 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추구한다. 이러한 목표의 추구는 어떤 대상에 대한 증오, 흑백논리, 불신, 상황이 어렵지만 자존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강한 자존심은 남의 호의를 너무 완강하게 거절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15]

고통을 가장 극대화하는 처형을 통한 방식은, 창피와 모욕을 통한 분노와 대감을 이용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더욱 배타적인 구조를 유지하게 되었다. 사회의 위로부터의 규범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아 온 북한 인민들은 불만과 불평이 있더라도 먼저 나서기를 꺼리는 성향을 갖고 있다.

1) 돌봄

2013년 민족 역사의 최대 비극인 6·25 전쟁 정전(停戰)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긴장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전쟁의 긴장감 말고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사회적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소수의 부유한 상류층이 빈곤한 다수를 지배하고 있다.[16] 한 민족 간의 전쟁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슬픈 현실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서슴없이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노사제가 있다. 메리놀 외방전교회 한국지부장 함제도(80,제라르드 하몬드) 신부다. 함 신부는 북한에 들어가 결핵 환자 치료활동을 펼치고 돌아 왔다. 그에 의하면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큰일이기에 평화를 유지하고

[15]모퉁이돌 제7기 북한 선교학교 북한복음화와 선교전략 강의안

[16]Jurgen Moltmann, *희망의 윤리*, 곽혜원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01.

통일을 향해가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17] 오늘날 남한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경제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돌봄이 바람직하다. 정전 60년은 가혹할 만큼 슬픈 역사다.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아직 구축돼 있지 않다. 지금까지 분단의 '한'이 앞섰지만, 통일이 되면 '정' 때문에 금방 하나가 될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북한 주민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줘야 한다. 지금 한민족에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민족 화해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가 고민하고 고려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남북한 간 대화가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양측 모두 대화를 진전시켜 나갈 신뢰가 부족한 듯하다. 하지만 대화의 기회조차 놓쳐서는 정말 안 될 일이다. 지금은 서로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믿음을 쌓는 '착한 교류'가 필요한 때이다. 인도주의 지원사업, 학술・문화・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곳에 이산가족 상봉 장소, 인도주의적 의료시설, 학술교류장 등을 상설 운영하며, 돌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민간차원인 "겨레사랑"이 돌봄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다.
특히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겨레사랑을 통해서 북한을 왕래하며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북한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한 돌봄을 위한 대북사업의 실질적인 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2) 치유

임헌만 백석대 교수는 "마음치유를 통한 북한선교" 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마음의 회복에서 나오는 진정한 행복을 꿈꾼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이 지금 알아야 할 것이 무언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방지일 영등포교회 원로목사는 "북한선교를 향한 기도와 깊은 선교의

[17] http://blog.daum.net/hyojasaint1/662.

전략들을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접근으로 북한 사람들의 심령에 효율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모든 만물의 위대한 전환(Wende)을 바라보기 때문에 종말론적 세계의 마지막을 희망한다.[18]

신약성서에 주님께서 공생애 첫 설교를 통해서 말씀 하신 것도 바로 목회적 돌봄과 치유에 관한 것이다.[19]

>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치유는 육적인 질병의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전인적인 치유를 의미한다. 이것은 한 개인의 치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까지 극복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성서에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영적 건강을 추구하고 있다. 예수께서도 많은 사역가운데 전도와 가르침과 더불어 치유사역에 많은 비중을 두셨다.

Howard Clinebell 은 해방으로서의 치유를 인간들이 전인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돕는 해방이라고 보았다.[20] 관계의 치유는 세 가지 해방을 의미한다.

첫째, 자신과 이웃, 피조계와 분리되었던 관계 회복

둘째, 소외에 의한 감정적 고통에서의 해방

셋째, 정신, 신체 장애의 고통에서의 해방

---

[18]Jurgen Moltmann, *희망의 윤리*, 곽혜원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91.

[19]눅4:18-19.

[20]박애리, *Howard Clinebell의 성장상담의 원리와 실천에 관한 연구*(경기도 군포: 한세대박사학위 논문, 2008), 136-139.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심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모든 억압된 관계 속에서 해방의 열쇠를 제공하셨다.

무엇보다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치료함으로써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관계 회복을 지향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즉 모든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Moltmann(몰트만)은 희망의 윤리로 풀어간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억압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함, 비천한 자들을 일으켜 세움, 병자들의 치유, 가난한 자들의 정의는 희망의 윤리가 기치로 삼고 있다.[21]

주민들의 정서적 억눌림과 심리적 억압의 현실이 마음 치유를 통해 회복되는 것이 이 시대 남겨진 중요한 과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우습게 보지만, 북한이 금방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체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북사업을 접근하려면 먼저 그들의 심리적이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자존감이 약해진 것을 보일지라도 사상적으로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을 접근함에 있어서 오만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주체사상이 기독교와 접촉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세계관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신론자들을 위해 실천 가능한 변증법적 선교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실존분석적 정신요법의 차원이론 또한 북한 주민을 위한 실천 가능한 변증법적 선교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들은 주체사상이라는 수단으로 무신론자로서의 훈련을

---

[21]Jurgen Moltmann, *희망의 윤리*, 곽혜원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94.

받아왔기 때문이다.

2. 목표(Objective)

1) 실질적인 도움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Ch. Blumhardt)와 디트리히 본회퍼(D. Bonhoeffer)는 이 땅을 신학적 사고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의 부활의 나라'로 이해하면서 육체성과 이 땅에 충실한 현실주의를 관념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개신교 신학 안으로 가져왔다.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Ch. Blumhardt)는

> "목표는 먼저 세상적인 것이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듯이 목표는 천상의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다." [22]

현실적으로 북한 자체의 힘으로는 경제재건이 불가능하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재건에 필수 불가결한 자금, 기술, 노하우 등도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은 외부의 적극적인 경제지원이 필요하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구현에 꼭 필요하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나 흡수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도적 대북 지원은 남북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은 기아와 질병에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인간 양심에 기초한 문제로 인도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행위이다. 그래서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도주의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독립성을 유지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식량수입을 위해서는 공산품 수출을 통하여 외화를 획득해야 하지만, 북한 산업은 황폐화된 상태이고 경제재건을 위한 외국의 투자도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22] Ibid., 222.

이다.

인도적 대북 지원이 갑자기 감소한다면, 수 만 명의 북한 주민이 기아로 죽을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이미 지난 10 여 년 간의 식량부족과 보건, 의료 시설의 미비로 인한 영아사망률 증가와 아사자 발생 등 수 많은 어린이와 어른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23] 이념과 정치노선을 넘어서 남북한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한 조건이 없이 도움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순수한 도움의 손길이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단체들이 직접 북한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누며,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다.

2) 친밀감 회복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Abraham H. Maslow)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요약한바 있다. 신체적 필요, 안정감과 보호에 대한 필요,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필요, 자존감에 대한 필요, 자아실현의 필요, 예술과 문화에 대한 필요, 세계관과 종교에 대한 필요가 그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의 기저에는 친밀감이 깔려 있다.[24] Erikson은 성인 초기의 성격특성을 친밀감 대 고립감의 위기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기는 이성을 사귀고 결혼을 하는 시기이며 졸업을 하고 직업을 갖게 되어 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하고 사랑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친근감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친근감 형성과 사회 참여에 있어 사회적 관계를 피하거나 자기 자신에게만 열중할 때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대인관계를 맺는다.[25] 현재 북한의 성인들은 자기

---

[23]UNICEF 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1985년 평균수명은 남자가 64.1세 여자가 70.4세이다. 통계청은 1997년 북한 주민의 평균수명이 남자가 59.8세 여자가 64.5세라고 발표(1999.8) 한 바 있다.

[24]명성훈, *뒷문을 막아라*(서울: 크레도, 2000), 33-37.

[25]James W. Fowler, *신앙의 단계들*, 이재은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105.

상실의 불안 때문에 친밀감의 정반대, 즉 고립감(isolation)과 그로 인한 자기 몰두에 빠질 수도 있다. 좀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소외감’(distantiation)은 단지 친근성의 회피 혹은 후회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즉 타인 혹은 타인들과 친밀하게 되어갈 것이라는 예상 자체가 지나치게 위협적인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이나 힘, 즉 그들의 존재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위험스럽게 생각되는 그들을 파괴시키려 할 수도 있다.

6.25 전쟁이후 60년간 뿌리 깊은 반공주의에 젖어 국가보안법 체제를 바탕으로 북한과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남한에서 대북지원 운동이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안팎의 도전을 이겨내고 발전해 왔다. 그렇기에 친밀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아의 힘, 혹은 사랑(Love)이라는 미덕을 키워가게 되었다.[26] 이런 친밀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생명권등과 밀접한 관계를 기반으로 순수한 동포애로 발전되기를 본 연구자는 기대한다.

3)복음전파

이 시대 예언자적 사역으로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 특히 북한지역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60년이 넘는 단절 속에서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지만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어느 정도 허용되어 있기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행19: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North Korea)은 지금 국제적인 고립과 남북교류 협력의 단절, 그리고 권위와 계급주의에 대한 어려움 속에 고통 받고 죽어 나가는 것은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 특히 병들고 가난한 어린이들이다.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아 영육적으로 다시 건강하게

[26]Erikson, *Childhood and Society*(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3), 265.

회복시키는 인도적 측면에서의 예언자적 치유사역의 실제를 다루고자 한다.

기독교 교단의 대북지원은 기독교 NGO 와 달리 대부분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대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주로 종교교류를 시작으로 대북지원을 시작하였거나 또는 종교교류와 대북지원을 비슷한 시기에 함께 시작하였다. 그러나 종교적 배경을 지닌 NGO 는 신앙심에 기초하여 고통 받는 북한 동포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다. '선교'라는 숨은 목적을 지니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활동에서는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건 없는 지원의 원칙과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27] 1990 년대 중반, 식량난으로 북한이 사회구호적 사회개발적 지원(선교)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에큐메니칼 진영 역시 대북지원에 참여하였다. 그 동안 대화를 추구하는 진보진영의 선교는 에큐메니칼 논의를 통하여 민간교류를 자극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했다.[28] 이들의 성격은 '중립적 인도주의 입장''선교적 입장 포괄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NGO 단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현'과 '이웃사랑 정신의 실천'을 목적으로 대북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섬김과 나눔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자, 넓은 의미의 사회 복지 선교차원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

[27]김병로,*기독교 대북 NGO의 분화와 지형분석*, 기독교통일학회 제 3차 정기학술 심포지엄 (2007.4.28) 자료집 pp88-89.

[28]이만열,*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407-414.

Ⅲ. 연구조사 질문(Research Approach)

1. 성서적 접근(Biblical Approach)

1)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빵 문제와 육체의 질병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오늘날 이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북한이다. 구약에서는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특별한 보호법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했다. 특히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마14, 막6, 눅9, 요6), 질병을 치유하는데(마9:2-17, 막2:1-22, 눅5:17-39)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3대 사역인 가르침(teaching), 전파(preaching), 치유(healing)를 통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전심전력을 쏟아 부었다.

또한 교회는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교회가 예배당을 사용하고 소유할 수는 있어도 예배당 자체가 교회가 될 수는 없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고, 교회는 사람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29] 그렇기에 교회의 주요사역은 돌봄과 치유가 될 수 밖에 없다. 초대교회를 살펴봐도 예배당 건축에 대한 언급보다는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

[29]정성욱, *스피드 조직신학*(서울: 홍성사, 2007), 167-168.

하시니라”[30] 초대교회는 성령강림 사건 이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새가족들이 늘어났다.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는 새로운 동역자들이 필요했다. 사도들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웠고, 그들에게 역할을 분담해 준 것이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집사들에게는 구제와 각종 봉사하는 일을 맡긴 것이다.

바클레이(W. Barclay)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배움과 교제가 있으며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통용하는 교회로서 당시 교인들은 상호간에 타인에 대한 두터운 책임감이 있었고 교회가 일단의 형제가 될 때에만 참 교회가 된다고 하였다.[31] 그 결과 새가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려진 사역은 역시 빵에 관한 것인데, 영적인 양식인 말씀 전하는 것과 육신의 양식인 떡을 떼는 것이었다.

2)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은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헤매이게 한다. 북한주민 대부분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고, 그 체제속에서 강요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1) 사유재산권(proprietary rights)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자, 마지막 보루라면 이 세계의 모든 재화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다만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소유권을 인간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해 주셨는가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인류역사와 사회에서 인간은

---

[30]개혁개정판, 사도행전 2:46-47.

[31]William Barclay, *사도행전*, 정혁조 역(서울: 기독교문사, 1994), 49-52.

실제로 재화의 소유권을 주장해 왔고 또 인정받아 왔기 때문이다. 인간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게 되었을까? 기독교 이전에 집단적인 자연법이 앞서며, 현대의 주관적인 개인주의적 자연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32]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에서 '문화위임명령'(cultural mandate)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1:27-29로 돌아가 보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적어도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관해 적어도 네 가지를 가르쳐 준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유사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과 둘째, 남녀 인간을 창조하셔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자손대대로 번성하도록 의도하셨다는 점이고, 셋째는 인간에게 모든 생물에 대한 관리(지배)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점이며, 넷째로는 모든 식물을 음식으로 주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크리스천이 이 세계의 재화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단지 대리인이나 청지기(steward)라고 하여도 실제로 그 권한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세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번성하도록 복을 받았으며 생물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졌고 모든 식물, 나중에는 동물까지도 음식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32]Emil Brunner, *정의와 사회질서*, 전택부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22.

생태학자 Eric Schneider가 지적한 것처럼, 자연은 경사(gradient)를 몹시 싫어한다. 대기계와 수계, 지구계를 포함하는 개방된 물리계는 특히 열의 흐름을 통해 에너지를 분산하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평형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열역학 제2법칙을 따른다.[33] 이에 따르면 자연의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하며 재화가 생산과 재생산이 이뤄진다는 반면 성경에 근거해서 볼 때, 재화에 대한 인간의 소유권 주장은 사실 이 위임명령으로부터 왔다고 보아야 한다. 이 명령은 유대인이나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개혁주의에서는 이 위임명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이 인간과 세계의 총체적 타락(fall)에서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인간에게 남아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명령은 재화에 대한 '사유재산권'(proprietary rights)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인정된 사유재산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소유권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성립하는 '대리인(청지기)적 소유권'이다.

실제로 성경에서 사회적인 차원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구약 성경에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수많은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소유권과 상속권의 예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직 자기 땅 한 평 없는 이주민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약속한다.(7절) 또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부여한다.(4절) 이 약속의 연장선에서 여호수아 13:7-8 에는 레위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요단강 동쪽과 서쪽의 땅을 소유지로 분배받는 사건이 나오며 욥기의 마지막인 42:12에는 고난을 통과한 욥이 처음보다 더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33] John Brockman, *위험한 생각들*, 이영기 역(서울: 갤리온, 2007), 129-130.

신약성경에는 재화의 위험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처음부터 동반되지만 사유재산권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사유재산에 기초한 이윤추구가 긍정적으로 묘사되기까지 한다.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과 '맘몬'(우상화된 재화)을 함께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예수의 경고가 주어지지만, 25장에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등장한다. 이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경영해서 이윤을 남긴 관리인(종)들을 칭찬하는 반면에 무능한 관리인을 질책하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비유인 누가복음 19장의 열 므나의 비유에서도 장차 왕이 될 귀족의 은화를 맡은 종들이 적극적인 사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했을 때, 성읍을 다스리는 권한이 보상으로 주어지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왜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했는가? 그것은 두 가지의 이유에서다. 첫째, 원래 언어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비유적이기 때문이다. 즉 언어는 사실만의 언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유의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이다. 둘째, 성경 자체가 비유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비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방식이다.[34] 초기의 서신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바울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3:10)는 명령으로써 무절제하고 게으른 신자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스스로 일해서 자립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서 사유재산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크리스천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사유재산권을 정의로운 것으로 옹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유주의 논객 복거일은 자본주의가 정의롭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일상적 '자연스러움'에서 찾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사유재산권이 역사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녔고 자연스럽다고 해서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각종 투기행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본주의 내에서 막대한 사유재산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작은 노력으로 손쉽게 얻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주의 사회학자 브라이언

[34]김지찬, *언어의 직공이 되라*(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105.

터너는 “자본주의가 원초적 시민권 관념을 촉진하고 발전시키지만, 자본주의는 또한 주로 경제적 성격의 대규모 불평등을 창출”한다고 말한다. 캐나다 리전트 대학의 기독교경제학자 크레익 게이도 “시장 자본주의는 결코 이상적(ideal) 경제 시스템으로 경험되지도 않았고 어떤 종류의 고전적인 철학이나 목적론의 의미에서 잘 살거나(live well) 선 자체(goodness per se)를 욕구하도록 참여자에게 요구하지도 않았다”[35]는 점을 지적하면서 돈(money) 역시 현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당황스러운 문화적 모순들에 직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사유재산제의 정당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재화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이 얼마나 인정되는가에 따라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책임(responsibility)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창세기1:28)

크리스천에게 이 문화위임명령은 사유재산권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책임의 원리를 제공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지배하는 권리인 통치권(dominion)을 주신 것이다. 시편 8편은 이 사상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에서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노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시편 8:5-9)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계와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전권을 위임 받았다.

[35]http://blog.naver.com/kjyoun24?Redirect=Log&logNo=60039177075.

문제는 이 권한은 역사에서 보아왔던 '정복'(conquest)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지배권은 오히려 '이름부여를 통한 관계형성'(창 2:19), '평화로운 질서와 균형의 유지', '약자에 대한 돌봄' 등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서양의 역사에서 기독교는 세계에 대한 지배권에서 자연에 대한 책임의 측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 부작용은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원주민을 동원한 정복자들의 금과 은의 무분별하고 탐욕스러운 채굴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1812년 영국에서 뉴커먼에 의해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가속화된 산업혁명에 의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두 사건 모두 기독교 국가를 자처했던 스페인과 영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서구 기독교와 무분별한 자연의 착취의 결합에 대해 1967년 레슬리 화이트가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한 논문 "우리의 환경 위기의 역사적 뿌리"(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36] 이 논문에서 화이트는 "자연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존재이유가 없다는 기독교의 공리를 거부하기 전에는 환경 위기는 계속 악화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과학과 기술은 정통적인 크리스천과 너무 동화되어서 환경위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그들로부터는 기대될 수 없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사실 화이트의 비판은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성격이었지만 20세기의 크리스천들이 문화위임명령을 자연에 대한 책임을 동반하는 지배권으로 바르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크리스천은 인간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위임을 일방적인 '정복'이나 '착취'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제시된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에 대한 논의는 자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자의 소명을 받은 모든 크리스천도 참여해야할 영역이다.

---

[36]최태연, *신앙과학문* 제7권 제2호 통권24호(2002. 12), 157-182.

미국의 정치학자 밀브래스는 같은 제목의 책에서 인류의 위기는 “지배하는 방법에 대해 너무나도 잘 학습” 해온 결과인 “종으로서의 우리 인류의 성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 성공은 “지구의 자원을 인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해주었지만 ‘인구폭발’과 ‘생물권의 파괴’와 ‘기후변화’를 낳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밀브래스는 이 위협에 대한 대안으로 (특히 저개발 국가의) 인구 억제, 에너지 사용의 제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보급, 대도시의 인구집중의 억제. 군사비를 환경보호비용으로 전환 등을 들고 있다. 크리스천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자연에 대한 이러한 책임에 대해 무관심한다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된다.

책임의 문제는 물론 이렇게 거시적인 환경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기독교윤리학자 윌리엄 슈바이커는 기독교 책임윤리를 크리스천의 “모든 행위와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통전성을 존중하고 함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37] 이 정의에서 삶의 통전성(integrity)이란 삶의 모든 영역과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시하고 그 모든 영역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책임을 의식하고 실천한다는 의미이다. 크리스천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맡겨진 재화에 대해 책임있는 경제행위를 하도록 부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3) 자유(freedom)

앞서 말한 사유재산권과 책임은 개인의 자유와 뗄 수 없는 원리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은 자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반대로 개인의 자유는 사유재산을 갖거나 사회적 책임을 갖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37]William Barclay,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윤리*, 문시영 역(파주: 도서출판살림, 2003), 116.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책임있는 행위를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과연 인간은 자유로운가?

이런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우선 성경에서 출발해 보자. 성경은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의 선물이라고 본다. 이 자유는 이미 세계의 모든 생물에 대한 관리권과 음식권이 주어진 창세기 1장의 문화위임명령에서도 암묵적으로 나타났지만, 창세기 2장에서 더욱 명시적으로 주어진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창세기 2:16-17)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허락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권리, 즉 자유를 허락받은 것이다. 자유는 단순히 인간의 속성일 수 없다. 오히려 자유는 인간을 비로소 인간이게끔 하는 사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인간이 자유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인간을 소유한다.[38] 그러나 자유의 열매는 썼다. 인간은 뱀(사탄)의 유혹 아래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 그 결과 고통과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다.(3:1-20) 죄(sin)의 기원에 대한 창세기의 말씀은 인간의 자유의 이중성을 알려준다. 인간은 자유롭게 창조되었다. 그 점에서 자유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위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가능성은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항상 왜곡되어 나나난다. 최초의 인간부터 이 자유를 잘 못 사용했기 때문이다. 자유의 오용과 남용은 인간의 또 다른 본질이 되었다. 만일 인간에게 자유가 본래 없다면, 인간은 자유를 추구할 필요도 없을

---

[38]Martin Heidegger, *이정표*, 이선일 역(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122.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해 왔고 실현시켜 왔다. 고대에 당연시 되었던 노예제도와 중세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18세기 후반의 정치혁명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이념을 사회제도로 실현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다. 프랑스 혁명은 파괴와 건설, 공포와 평화, 학살과 부활, 탄압과 자유, 독재와 공화, 좌파와 우파 등 서로 상반되고 얼룩진 상황을 만들어냈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엇갈린 해석도 많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근대 시민국가 · 자유주의 · 민주주의를 탄생시키는 모델이 되었다.[39] 150여년이 지나서 20세기 중반에야 모든 여성과 남성이 참정권을 얻었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자율적인 통치권을 얻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 확대와 실현의 역사이다.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노예제 사회를 정치혁명을 통해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유인이나 노예, 귀족이나 평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자매라는 신앙을 통해 근대의 자유주의를 준비시켰다. 특히 모든 인간이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의 계약(언약) 관계에 들어오고 신앙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 계약이 유지된다는 신학은 17세기 이후의 사회계약이론의 토대를 제공했다.

자유를 인간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자유주의(liberalism)는 바로 이 사회계약이론이 발전된 형태이다. 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전된 자유주의는 로크, 흄, 벤담, 밀, 루소, 몽테스키외, 칸트 등의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고 숙성되었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에는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등의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적어도 다음의 공통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은 사회적으로 평등하다. 셋째, 개인의 모든 행위는 자기에게 귀속된다. 넷째, 개인들의 신념이나 상호간의 비판은

[39]서정복, *프랑스혁명*(파주: 도서출판 살림, 2007), 4.

관용되어야 한다. 자유주의는 이러한 신념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 경쟁적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세 가지 수단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1989년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이후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주의를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자유주의의 근거한 민주공화국이며 대부분의 한국 크리스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순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에 대한 크리스천의 평가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하는가? 이미 앞서 보았듯이 성경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 이중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구속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인간은 원죄 때문에 항상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된다는 역설이다.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법의 준수를 통해 이기심을 억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애(self-love)를 자유주의 경제의 기본원리로 삼았다.[40] 그러나 실제 자유주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기심의 억제 또는 법의 준수와 자기애의 추구 사이에는 항상 커다란 괴리가 놓여있었다고 할 수 밖에는 없다. 크리스천은 바로 이 괴리의 원인을 모든 인간을 점령하고 있는 죄라고 부른다. 결국 기독교의 시각에서 볼 때, 자유주의의 문제는 원죄에 의해 발생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이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빈부격차와 불황, 실업, 독점,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시장의 실패에 기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자유는 소중하지만, 자유의 결과는 인간에게 항상 행복을 선사하지는 않는다.

3) 구약에서 선지자의 돌봄과 치유

구약성경에서 돌봄과 치유자로서 스스로를 계시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겪고

[40]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읽기*(서울: 세창출판사, 2013), 62.

있는 질병으로부터의 고통과 죄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치유한다. 출15:26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밝힘으로써 당신이 온갖 질병으로부터 겪는 고통을 치유하는 치유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는 전인적인 차원에서 돌봄과 치유를 의미한다.[41] 인간 생명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은 돌봄과 치유하시는 분으로서 자기 신원을 밝히시고, 인간과의 관계성 안으로 침투하여 인간이 겪고 있고, 겪게 되는 숱한 질병으로부터의 고통을 함께 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이해하였으므로 자신들이 겪는 질병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된다고 믿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인간과의 관계성 안으로 침투하여 병들게 하고, 또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엘리야의 제자로서 스승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선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돌봄과 치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42]

<표1> 열왕기하4-5장에 나타난 돌봄과 치유사건

대상	성경	상태	결과
과부와 두 아들	왕하4:1-7	빚으로 인해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위기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넘치는 기적으로 돌봄
수넴여인과 아들	왕하4:17-37	아들이 죽음	수넴여인의 죽은 아이를 치유하여 살려냄
선지자의 제자들	왕하4:38-41	독이 든 들호박 국을 앞에 놓고 먹지못함	독을 없애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배불리 먹음
백명의 무리	왕하4:42-44	보리떡24, 한 자루 채소	배불리 먹고 남았다.
나아만	왕하5:1-14	나병이 심각함	깨끗이 치유됨

[41]1946년 제정된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에 따르면 “건강이란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지의 상태이며, 단순히 질병 또는 병약이 없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선언하였고, 1998년에는 ‘영적 건강’까지 추가하여 선언하였다.

[42]열왕기하 4장과 5장에서 제한하고자 한다.

세계교회협의회(WCC)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에서 끝내 북한의 인권 현실을 외면한 것에 대해,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간 온건한 입장에서 WCC의 변화를 기대했던 이들에게 실망의 충격을 주있다. “WCC가 (성명서에서 인권 유린의 주체로) 북한을 지목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명서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와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회복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WCC는 성명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우회했다. 북한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다면서 ‘WCC는 바로 그 약자들 편에 서 있다’는 식의 간접적인 표현만 쓴 것”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외세가 다 물러가야 한다고 했고, 핵무기와 핵발전소도 동일시했다.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동시에 핵발전소도 없애야 한다고 한 것” “칼은 위험한 물건이지만 그것을 의사가 들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는데도, 그저 모조리 없애자는 논리”를 사용했다. 이러한 WCC의 평화와 정의 개념은 편파적이다.[43] 진정한 돌봄이란 돌보는 사람 자신도 남을 돌보듯이 자신을 돌볼 때부터 시작된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아껴라’(레위기 19:18)는 복음의 말씀은 이 점을 깊이 시사해 주고 있다. 돌보고자 하는 내적인 움직임은 타인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마찬가지로 돌보는 사람 자신에 대한 돌봄도 역시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

4) 신약에서 예수님의 돌봄과 치유

성경은 교회가 상호 돌봄의 공동체인 것을 분명히 한다. 갈6:2, 롬15:1, 마25:31-46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교회 안에서의 상호 돌봄은 ‘에클레시아’와

[43]크리스천 투데이, ‘WCC 선도하려던’ 교계 지도자들, 충격 넘어 분노,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입력 : 2013.11.08. 16:53.

‘코이노니아’를 형상화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44] 또한 교회의 본질로서 핵심적인 단어는 ‘디아코니아(봉사)’와 ‘케리그마(선포)’ 그리고 ‘코이노니아(교제)’이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적 측면에서 케리그마 즉 복음 전도를 가장 중요시 하였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도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강조한 나머지 교회 밖의 교제에는 관심을 갖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먼저 케리그마란 단어는 선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개역성경에서는 ‘전도’라고 번역되었는데 ‘선포되는 내용’과 ‘선포하는 행위’를 함께 나타낸다.[45]

디아코니아는 ‘봉사’와 ‘섬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에 34회 정도 나온다. 눅10:40, 행6:1 등에서는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을 의미하고, 고전16:15, 계2:19에서는 사랑의 봉사를 의미한다. 행11:29, 롬15:31, 고후8:4 등에서는 헌금을 모으는 것을 통한 봉사로, 엡4:12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봉사를, 골로새서4:17, 딤후4:5은 교회의 직무에 대한 봉사를 나타내고 있다.[46]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의식은 디아코니아의 표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식사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고 피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가진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 고통받는 북한주민에 성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으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구체적으로 돌봄과 치유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사역은 분명히 구별해 낼 수

---

[44]최민수, *목회상담과 돌봄*(서울: 그리심, 2008), 27.

[45]손윤탁, *교회성장의 지름길*(서울: 성지, 1997), 63.

[46]고영민, *디아코니아(Diakonia) 성서원어대사전 제4권*(서울: 기독교문사, 1986), 372.

없을 정도로 서로 얽혀 있다.[47] 교사(랍비)로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마가복음 1장 15절).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가르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키셨다(마태복음 26장 55절).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사역의 확장이 훈련받은 제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들을 사도(apostolos)라 칭하여 복음전선으로 파송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에 가르침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교사로서의 표현이 적합하다.[48]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뜻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따르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 속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따르게 하셨다. (마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13장 15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이 방법은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4복음서 전반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어떤 곳에 있든지 교육사역과 깊은 관계를 갖고 계셨다. 예수님의 교육방법은 공식적이며 정규적인 것보다는 언제나 비공식적이며 비정규적인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예수님은 장소를 초월해서 길가, 해변, 광야, 산, 집, 우물곁에서 그리고 회당과 성전, 그 어떠한 곳에서도 친밀하게 거닐고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리를 가르쳤다.[49]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의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셨다.[50] 또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데 인색하지 않으시고

---

[47]J. D. Smart,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1990), 19.

[48]C. B. Eavey, *기독교 교육사*, 김근수 역(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2), 113.

[49]Ibid., 114-115.

[50]김영규, *기독교교육학*(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56.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 생활하시므로 개인접촉을 통하여 친밀함으로 접근하셨다.[51] 특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고려의 대상은 개인이었다. 그는 개인적인 접촉을 강조하셨고 한 영혼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셨고 한 영혼이 바로 서는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고, 한 영혼이 양심에 따라 행하며, 한 영혼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한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가르치셨다.[52] 예수님은 개인의 문제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시어서 그들과 상담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문제해결을 얻게 했다. 수가성 여인이나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나 세리장 삭개오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53] 예수님은 언제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르치셨다. 궁극적인 교육목표는 십자가나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실현이었다.[54]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종말론적 영역이었다.

<표2> 마가복음2장과 3장에 나타난 돌봄과 치유사건

대상	성경	상태	결과
중풍병자	막2:1-12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 달아내림	치유와 함께 죄사함도 받음
세리 레위	막2:13-17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세리의 집에 찾아감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심
손 마른 사람	막3:1-6	안식일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통해 시험하심	손을 치유하심
모친과 형제	막3:31-35	모친과 형제가 만나려 옴	믿음의 혈육도 소중히 하심

[51]Waylon. B. Moore, *신약성서적 새가족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 역(서울: 요단출판사, 1982), 38-40.

[52]C. B. Eavey, *기독교 교육사*, 김근수 역(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2), 117.

[53]Ibid., 115.

[54]김영규, 57.

2. 사회정의적 접근(Social Justice Approach)

1) 양극화 심화

사회적 불평등 구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온 보편적인 현상으로 '계급없는 평등사회'를 부르짖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막스 베버는 사회적 불평등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구조화되며 경제적 계급 뿐만 아니라 정당과 같은 권력이나 신분, 인종, 성별, 종교 등 사회적 지위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55]
사회 양극화는 남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남한에서 양극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도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 소득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한 문제 전문가에 따르면[56] 평양의 위탁가공 업체에서 일하는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많게는 사무직 근로자 월급의 10배나 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이 전문가는 "영업이 잘 되는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해 한 달에 2만원 이상을 받기도 한다"면서 "이는 사무직 근로자 월급이 2500원 안팎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액수"라고 말했다. 위탁가공 업체 근로자들이 받는 돈은 대체로 기본급 8000～9000원에 상여금 1만원 안팎이라고 한다.
위탁가공 업체에는 아무나 취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전문가는 "위탁가공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당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 이후다. 통일부 관계자는 "7·1 조치 이후 일부 업체들이 근로자들의 업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보상분배는 결국 자본주의적

[55]김병로 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6.

[56]세계일보 2006-01-30 11:12, 원재연 기자 march27@segye.com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과 국가라는 매우 뚜렷하게 보이는 손에 의해서 지배되며 불평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다 첨예화되기 쉽다.[57]
현재 평양에는 남한 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가공 업체가 30여곳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의류와 전자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업체들은 작업성과에 따라 다른 성과급 액수가 적힌 표를 작업장에 붙여놓고 근로자들을 독려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소득 격차가 아직 평양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아는 일반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 다른 매체에 따르면[58] 남한 사회가 양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도 빈부 격차가 커지며 취약계층의 굶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은 22일 소식지를 통해 “북한 사회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은 빈부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지에 따르면 북한 사회에서 상층 주민들은 2700만에서 4000만원 (1만∼1만5000달러 상당) 이상의 집에서 살며 냉장고, 세탁기, TV 등 전자제품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가정부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3∼4인 가족 기준 상층 가정의 경우 하루 평균 식비로 약 3만원 정도 쓰고 있으며 식비를 제외한 월 평균 가계지출은 100만원 이상에 달해 중간층 주민(3000∼5000원, 10만∼15만원)이나 하층 일반 주민(1000∼1500원, 3만∼4만원)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 사회 구조적인 문제

불평등 구조를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계급의식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즉 불평등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보다 불평등의 사회적 관계가 초래하는 정치사회적 결과 및 사회적 갈등에 관심을 갖는다.

---

[57]민족통일연구원,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주민의 가치체계*(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27~35.

[58]http://www.krnews21.co.kr/sub_read.html?uid=26274

불평등 구조속의 각 사회집단이 지배계층의 통치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자신들이 처한 불평등한 사회적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는 지배(domination)의 개념과 직결된다. A. Giddens(기든슨)는 지배를 구조화된 권력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불평등의 역동적 성격을 설명한다. 즉 그는 권력을 "행위자들이 지배의 구조적 속성들을 이끌어내고 재생산하는 행위자들간의 자율과 의존의 관계"라고 정의하며, 지배는 권력의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립되고 일상화하며 재생산될 때 일어나는 행위자들간의 규칙적인 유형들 혹은 구조화된 관계들이라고 규정한다.[59] 북한 사회에서 노동당은 행정·사법·입법부의 상위에 위치하는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모든 주요기관의 간부 직위는 노동당 당원이어야 한다.

일반 주민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노동당의 조직을 보면 최일선 지도기관으로 시·군당위원회가 있고, 최말단 조직으로 당세포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모든 주민 통제 방법으로 모든 주민들은 직업총동맹, 사회주의노동 청년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 노동당 외곽단체인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단체들은 노동당을 정점으로 하고 있으며 그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하부는 상부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각종 사찰기관을 통하여 반당.반혁명적 세력의 색출과 사상적 검증을 통해 불순분자를 색출한다. 북한 사찰기관은 1945년 이래 치안유지 및 반당·반국가 행위자 색출·검거와 주민 이동사항을 점검하는 사회안전부와 1973년 5월 정치사찰 전담기구로 조직된 국가안전보위부가 있는데 이 기관은 반당·반국가 음모자 색출, 주민 사상동향 및 검증 등을 주 임무로 한다. 주민통제를 위한 조직으로는 1977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 때 신설된 사회주의법무생활 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관료주의 제거와 엄격한 법적 통제, 전 주민에 대한 사상 투쟁 전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통상 20~30세대로 조직된 인민반은 주민들의

[59]김병로 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13.

일상생활을 지도하고 있다. 그 밖에 20호 및 위생 검열 따위를 통해 주민을 통솔한다.

(1)경제사회 통제 - 경제통제는 생존의 기본수단을 장악하여 주민통솔을 하는 것이고, 사회통제는 출신성분과 계층에 따라 사회적 대우를 하는 것이다. 경제통제의 일환으로서 북한은 의식주 생활의 기본수단에 대한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의복배급은 기본의복에 한하여 실시하고 나머지는 할당표 구매카드에 의해 판매한다. 식량배급은 근로자와 비근로자(부양가족)를 구분하여 배급량의 차이를 두어 노동 기피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주택은 신분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노동 기피, 유휴노동력 발생 방지와 주민의 심리적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사적인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2)사회문제 - 북한 사회는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일탈행위 외에 경제난에서 오는 사회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즉, 강도·절도, 청소년비행, 성범죄와 함께 반발 심리의 범죄 등을 사회문제의 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사회에는 상당수의 청소년 폭력조직이 있는데 이들의 각종 범법행위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된다고 한다. 이들은 외국인 출입이 잦은 항구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절도, 강간, 소매치기, 패싸움 등 일탈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일탈행위가 외부 사조 유입되어서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청소년 교양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는 주로 물질생활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에 의한 것인데, 이는 외부로부터의 개혁과 개방 압력, 외래문화 유입으로 인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3) 화해와 평화통일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평화통일의 기회는 어느 순간에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조이 도우슨(Joy Dawson)은 이런 기회를 왔음을 깨닫고 붙잡는 순간이 중보기도(intercessor Prays)의 효과가 발휘된다고 한다. 이때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것이

다.[60] 인간의 힘으로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방법에 인간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일제식민지에 이어 전후의 냉전 속에서 우리민족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요된 분단은 지난 40년간 민족적인 고통과 아픔을 가져온 민족시련의 최고 정점으로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한 분단극복으로서의 평화통일은 연속되는 민족시련에 종지부를 찍고 분단으로 인해 파생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제 모순을 극복하는 작업이고, 통일신라로부터 1300여년 통일되어 내려왔던 한반도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교회는 남북한 평화통일에 기여할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선교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대적인 사명인 동시에 이 사명을 수행했을 때는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초를 마련해 준 셈이 된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체제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며 토착화 되어 왔다.

화해란 대립관계를 해소하여 우애와 평화의 관계를 맺는 행위와 이로 인해 일치된 상태를 말한다. 신약에 있어서의 일차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화해는 "속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신약의 화해론은 지난 19세기에 있어서 모든 구원론의 중심 사상이 되었고 화해는 특히 개인, 민족, 사회, 정치관계를 표시해 주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다. 현대 시대는 기독교의 정치적, 문화적 구조를 통해 과거의 기독교를 기억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61]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화해의 역할을 자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

[60] Joy Dawson, *Intercession, Thrilling and Fulfilling*(Seattle: YWAM publishing, 1997), 91.

[61] Dale T. Irvin, *Christian Histories, Christian Traditioning*(MaryKnoll: Orbis Books, 1998), 124.

기독교는 한마디로 죄의 고백과 화해를 신앙의 골자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해방 이후 분열과 반목으로 자국내의 교회도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반백 년이 가깝게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방치한 채 피차에 반목 질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인들이 절대화 하는 것은 성경이다.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이다. 물론 이 길은 하나님께서 먼저 마련하셨다. 그래서 성서의 구원론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이웃과 또 사회와 화해해야 한다는 세속적 생각과는 명백하게 대조를 이룬다. 성서는 이런 차원에 있어서 화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의존할 때 파생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 만이 화해가 가능하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물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16:15) 그때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마16:16)고 대답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고통이든, 역사적 인간으로 혹은 그의 사역의 구원론적 의미든, 죽음과 부활, 또는 종종 기독교 메시지에 함축되어 있다.[62]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그의 기독론에 대하여 알게 한다. 이 설교에서는 특히 원죄 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기본 구조를 알게 한다. Moltmann(몰트만)은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이 무신적 세계 속에서, 곧 모순 아래에서(sub contrario) 인식되며,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무신적 관계들을 파괴한다.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불행하고 교만한 신들을 그들의 낮음과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참 인간으로 만들며, 이리하여 우리를 우리 자신

[62]Serene Jones and Paul Lakeland, *Constructive Theology*(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162.

에게로 해방한다는 것이다.[63] 또한 그는 러시아 사람 디미트리 메레슈콥스키(Dimitri Mereschkowski)의 책『예수 장차 오실 분』을 통하여 신학의 미래지향성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상태, 즉 본질적 형상(=영혼)과 도덕적 형상을 주셨다. 그러나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여 타락시키고 이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영혼)을 근본적으로 왜곡되게 하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불신앙과 교만, 자기의지와 세상사랑 안에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인간을 그 악의 구조 안에 붙잡아 놓고 있으려고 힘쓰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 다른 이름으로는 루시퍼 또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임을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알게 한다. 웨슬리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이‘마귀의 일들’을 파멸하기 위함이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우리의 이해력의 눈을 열어주시며 빛을 비추어,‘빛이 있으라 하신 즉, 빛이 있게 되었다’는 그‘역사하는 말씀’으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태로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 놓으신다. 그리스도는 이 믿음으로써 우리 영혼의 불신앙을 파멸하신다. 이로써, 죄악으로 병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믿는 자를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심으로써 교만을 파멸하신다. 그런 다음 겸손하게 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자기의지를 파멸하신다. 그리하여 불순종하던 의지를 순종하는 의지로 회복시키신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복음은 예수를 흉내 내는 것도 그의 경험을 반복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예수의 고유한 것이다. 우리

---

[63]Jürgen Moltmann, *신학의 방법과 형식*, 김균진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02-103.

는 예수와 '함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64]

Tertullianus(테르툴리아누스)[65]는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우리는 신이면서 인간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에서 혼합(confusum)되지 않고, 결합(coniuncium)되어 있는 이중의 본질을 본다."고 제시한다.[66] 여기에서 나온 인격(person)이란 말은 개별적 성격을 가진 본질로서 곧 예수의 본질로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의 본질에는 두 실체 곧 신적 실체와 인간적 실체가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실체는 독립되어 있고 서로 혼합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예수의 본질을 통해서 믿는 자로 하여금 죄의 전가가 가능하게 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게 하며, 이와 동시에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특히 인간 예수는 신이 변화된 존재가 아니다. 그는 실제의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 신적 교환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서 그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세상을 이기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이생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인간 안에 있는 마귀의 일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멸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를 John Wesley는 인간의 육체적인 연약함, 병, 고통, 그리고 육과 혈에 흔히 있는 수천 가지의 제한성들은 아직은 파멸하지 않으신다. 그는 영혼이 파멸적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되는 이해력의 모든 연약함을 파멸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류와 무지는 인간에게 불가피하다. 무지와 오류는 둘 다 인간성에 속하는 속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에서는 단지 지극히 조그만 분량의 지식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는 우리

---

[64]Alister Mcgrath, *기독교교리이해*, 정진오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144.

[65]요약 그리스도교 저작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순교에 감동하여 개종하였다. 그리스도교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으나 엄격한 성격 탓에 몬타누스파의 이단으로 기울어졌다. 신학에 관한 많은 책을 썼으며,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66]Paul Tillich, *그리스도교 사상사*, 송기득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02.

의 지식이 우리의 겸손을 방해하여, 우리가 다시 신인 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간의 교만은 결국 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기독교 교리이다.[67]

그래서 이신칭의로 중생하고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헛된 생각과 교만의 어리석음을 늘 의식하도록 하여 자멸의 길에 빠져들지 않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자리로 들어오시고, 인간이 전적인 은혜의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일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의 화해이다.[68] 이 화해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극악한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제각기 죄를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채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할 운명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로우시고(시7:9), 완전하신 분이다.(신32:4) 그렇기에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시11:7)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면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절대적인 완전함이 필요하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려는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애처롭고 절망적인 사람이 아닐 수 없다.[69] 그러나 인간의 무능이 구원의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능력마저 부정하는 데까지 선천적인 죄성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70] 웨슬리는 ‘주, 우리의 의라는 설교에서 그의 기독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자기정체성, 즉

---

[67]Peter C. Hodgson . Robert H. King, *Christian Theology*(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223.

[68]Karl Barth, *교의학개요 사도신경해설*, 신경수 역(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7), 159.

[69]Paul Washer, 195.

[70]Friedrich Schleiermacher, *기독교신앙*, 최신한 역(파주: 도서출판 한길사, 2006), 364.

그리스도의 양성론과 그리스도의 하신 일, 즉 속죄 공로에 대한 그의 이해를 알게 한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의 신성적 의 아니면 인성적 의를 의미한다. 그의 신성적 의는 그의 신성적 본질에 속한다. 그는 만물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본질적이며 불변하는 거룩성과 무한한 공의와 자비와 진리가 그의 신성적 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고 할 때 이 신성적 의가 전가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전가의 교리(the Doctrine of imputation)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성적 의의 전가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성적 의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인성적 의는 그의 인성적 본질 안에서 그에게 속한다. 그는 인성적 본질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 인성적 의는 내적 의와 외적 의로 나뉜다. 그의 내적 의는 그의 영혼의 모든 능력과 기능에 인쳐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내적 의는, 그의 신성적 의가 인간의 영에 분여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의 신성적 의의 묘사다. 이 내적 의는 신성적 순결함, 신성적 공의와 자비와 진리다. 이 내적 의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경외와 순종을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친절함, 그리고 타락한 인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다른 모든 거룩하고 천상적인 기질을 가장 높은 정도의 상태로 어떤 흠이나 거룩하지 않은 것과의 혼합 없는 상태로 포함한다. 그렇기에 예수는 메시야 이시고,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주가 되셨다.[71]

우리가 믿음으로 전가 받는 그리스도의 의는 그의 인성적 의다. 그리고 이 인성적 의는 내적 의와 외적 의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외적 의는 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로 구성된다."외적 의는 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로 구성된다. 능동적 의는 다시 소극적 의와 적극적 의로 나뉜다. 소극적 의는 그리스도가 어떤 외적 죄도 알지 못했고 행하

[71]Karl Rahner, *Theological Investigations*, trans. by Kevin Smyth(Baltimore: Helicon Press, 1966), 155.

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적극적 의는 아버지의 뜻 전체를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수동적 의는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그 영혼이 떠나시는 순간까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당하신 모든 일들을 포함한다. 그리하여 속죄를 이루신 공로를 의미한다. 우리가 전가 받는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내적 의와 외적 의 전체이고 이 의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가 성경에 일치되게 믿을 때 곧바로 전가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감수하신 것 덕분에 용서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예수는 정(Jeong)을 통해서 무아(no-self, 無我)로 일깨웠다.[72] 여기서 무아는 자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며 불변의 실체로서의 자아가 부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대상을 고유명사나 보통명사로 지칭하더라도 그것들의 연기적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칭의(Justification)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가능해진 구속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대가 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과 대가를 온전히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귀한 지식은 없다.[73]

하나님은 믿음에 의하여 칭의, 중생된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이식하듯이 심으신다(implant). 즉,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진정한 거룩으로 새로워진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고, 성화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이 그 믿

[72]Catherine Keller, Michael Nausner, Mayra Rivera, *Postcolonial Theologies: Divinity and Empire*(St. Louis: chalice Press, 2004), 158.

[73]Paul Washer, 206.

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하시고, 중생하며, 성화를 시작해서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근거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인성적인 의이다. 바울 사도는 칭의나 구속을 말할 때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빼놓지 않았다.[74]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으로 성육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는 근본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상 동일한 진리의 하나님, 빛으로부터 빛이 되신 하나님이시다.[75]

웨슬리는 하나님이 의를 전가하신(imputed)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식하듯이]심으신다(implants)고 믿는다.‘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하여’우리에게 의가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우리에게 성화가 되셨다’고 믿는다. 즉,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칭의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화하신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의롭게 만들어진다. 즉,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들이 그 안에서 피조된 바 그 모양을 따라, 의와 진정한 거룩으로’ 새로워진다. 하나님은 죄를 은밀한 곳에서 몰래 처리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후미진 곳에서 죽지 않으셨다. 이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의 의미와 인간애를 올바로 이해되어져야만 한다.[76] 그리스도께서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계시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증거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기 위한 공시된 죽음이었다.[77]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그리스도의 인성적 의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

[74]Ibid., 207.

[75]Peter C. Hodgson, Robert H. King, *Readings in Christian Theology*(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5), 205.

[76]Karl Barth, *The Humanity of God*(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60), 70.

[77]Paul Washer, 211.

적용(전가와 이식)됨으로써 우리에게 칭의와 성화가 이뤄진 것처럼 한국교회가 먼저 화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적대관계, 불신관계를 불식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양심 있는 화해정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선교는 한국교회가 당연히 책임을 강하게 의식해야 할 것이다.

1995 년 이후 방북자의 숫자는 수 만 명에 달한다. 목적도 인도지원, 경협, 문화교류, 관광 등 매우 다양하다.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를 배경으로 한 남한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없었다면 이 정도의 인원이 정말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는 소시기별로 정세조건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 이전과 비교해 보면 안정적인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물자지원,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 모니터링 차 방북 한 인사들을 통한 분야별 교류가 선 순환을 거쳐 대북인도지원을 매개로 이루어진 활발한 교류활동은 안정적인 남북교류와 협력의 밑거름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간 갖고 있던 상호 몰이해와 오해를 일정하게 해소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북지원이 최악의 상태를 최소한 막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분위기 정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대문이다.

<표 3> 남북인적교류현황[78] 관광인원 제외-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연도	´89~´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남→북 (방북)	55,257	26,213	87,028	100,838	158,170	186,443	120,616	130,119	116,047	120,360	1,101,091
북→남 (방남)	3,609	321	1,313	870	1,044	332	246	132	14	0	7,881
계	58,866	26,534	88,341	101,708	159,214	186,775	120,862	130,251	116,061	120,360	1,108

<표 4> 남북인적교류현황[79]

4. 생태선교적 접근(Eco-Missionary Approach)

1) 생산성 저하로 인한 식량부족

[78] 출처: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238

[79] 출처: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238

생태학은 그리스어 오이코스(Oikos, 집&가계관리)에서 유래하여 "주어진 외부 세계에 대한 유기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을 제시하기 위해, 1866 년 E. Haeckel 에 의해 생물학에 도입되었다. 핵켈은 1859 년 생태계의 진화론을 발표한 찰스 다윈에게 합류했는데, 이 진화론에 의하면 환경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자연선택의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80] 인류 문화의 확장과 인구증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태학은 지역적 차원에서는 물론, 범세계적 차원에서 환경파괴에 대한 조직적 연구로 발전되었는데, 예를 들면 북한은 산림을 훼손한 결과로 홍수조절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논밭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된다. 인간의 생태계에서는 원초적 환경과 부차적 환경 사이에 구별이 이루어진다. 원초적 환경은 생물의 영역(Biosphare)이고, 부차적 환경은 기술의 영역(Technosphare)이다.[81]

북한은 1980 년대 초반부터 농업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1980 년대 후반에는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산업 전반의 침체로 농업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와 함께 1995 년부터 시작된 자연재해는 북한의 구조적인 식량부족을 극도로 악화시켜 같은 해 8 월 23 일 북한 유엔대표부(뉴욕)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게 된다. 이 밖에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료진파견과 유엔 아동기금(UNICEF)에 미화 5 만 달러 상당의 콩을 원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유엔 인도 지원국(UNDHA)은 8 월 29 일에서 9 월 9 일까지 유엔 재해평가, 긴급조정팀(UNDAC)을 수해지역에 파견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평양주재 유엔 재발계획(UNDP)의 도움을 받아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식량 농업기구(FAO) 식량전문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북한의 식량난과 배급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유엔인도지원국은 공동조사

---

[80]Jurgen Moltmann, *희망의 윤리*, 곽혜원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240.

[81]Ibid., 242.

결과를 바탕으로 1995 년 9 월 12 일 대북 지원관련 유엔기구 공동명의로 인도적인 대북 지원을 위한 모금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하였다.

1995 년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장기화 되면서, 초기의 단순한 긴급구호성 식량지원에서 농업, 산림복구, 축산지원, 보건, 의료지원 등 개발구호로의 전환과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식량지원이 대북 인도적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개발구호의 증가와 함께 지원 사업이 다양화 되고 있다. 지원주체도 유엔기구, 비정부기구, 개별국가 등으로 참야 범위가 넓으며, 지원범위도 식량지원, 농업, 산림복구, 축산지원, 보건, 의료지원 등으로 포괄적이다.

2) 자연재해와 생태계파괴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것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 국내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수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은 물론 십 수 년에 걸쳐 국내를 비롯한 국외 조림 등 산림녹화 사업을 역점 추진 중이다. 이렇듯 산림 등 자연환경자원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인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같은 한반도에 위치한 한국과 북한의 산림환경은 휴전선을 사이로 극명히 갈리면서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다양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극단적인 산림훼손 국가로 규정하고 NGO 등 국제 협력 기관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평화체제 논의를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이의 일환으로 산림녹화를 통한 이른바 ‘생태통일’을 대안으로 제시되는 등 이에 대한 정부를 비롯한 국민 관심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림4> 압록강에서 바라본 북한의 민둥산 화전

북한의 대표적 환경문제인 산림훼손은 하루 이틀 사이 생겨난 문제는 아니다. 외교적으로 단절된 북한 체제의 특성상 산림훼손 문제는 단순히 나무를 심어 해결하기 어렵고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북한의 산림생태계 복구를 위해서는 야생동물이나 곤충의 서식처가 되는 산림의 조림, 복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은 남한보다 기온이 낮고 겨울이 길기 때문에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조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은 사방수종 위주로 수종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은 현재 다락밭 전용으로 낙엽층도 없는 산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성장이 잘 되는 수종보다는 우선 황폐지에 활착해서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종의 선택이 필요하다.[82]

일반적으로 북한 산림 황폐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랜 식량난과

[82]우수영, *동북아시아 국가의 사막화 현상이 북한 산림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영향과 통일 후 복구계획,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북한실태*, 2000, 40-42.

에너지난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뉜 다음부터 북한은 경작지가 적어 지속적인 식량난에 시달렸고 결국 식량부족 문제 해결을 일명‘다락밭’으로 불리는 농지확보에 나선 것이 북한 산림 황폐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북한의 황폐산림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산림 황폐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그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면 외부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인공위성 영상과 북한 발표자료,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8년말 기준 북한의 총 산림면적으로 899만ha이며, 이 가운데 황폐산림은 284만ha로 전체 산림 면적의 32%에 해당한다. 문제는 북한의 산림훼손이 해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1999년 916만ha에 이르던 산림면적은 2008년 899만ha로 10년 사이 여의도 면적의 202배가 넘는 17만ha가 사라졌다. 여기에 황폐산림 증가 문제는 더욱 심각해 1999년 163만ha이던 것이 2008년에는 무려 74% 증가한 284ha로 늘었다.

황폐산림 가운데 산림을 벌채하고 옥수수 등 작물 재배를 위한 ‘다락밭’으로 개간한 산지는 1999년 98ha에서 2008년 132만ha로 36%나 증가했다. 산림 벌채 후 방치된 무립목지도 1999년 53만ha에서 141만ha로 무려 88% 늘어나는 등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짐작케 한다. 특히 무분별한 산림 벌채로 홍수나 태풍, 산불 등 풍수해 피해나 병해충 문제도 황폐화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5>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북한에서 나무심기[83]

1990년 중반 이후 지속되는 북한지역 홍수·가뭄 피해와 이에 따른 대규모 식량 위기 상황이 하나둘씩 외부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식량과 농업, 대규모 산림황폐화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국내에선 1999년부터 민간단체인 '평화의숲'이 북한 산림복구 지원활동을 시작했지만 산림복구사업 특성상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고 개별 민간단체에서 전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돼 왔었다. 이후 2007년 평화의숲,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흥사단 등 20여개 단체가 연합해 '겨레의숲' 조직을 출범하고 산림분야 대북 지원 사업이 본격화 됐다.현재까지 산림분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은 양묘와 조림, 병해충 방제, 국민참여 확대 등 4개 분야로 진행됐다.

양묘분야 대북지원은 산림분야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평화의숲이 1999년 4월 북한의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측으로부터 소나무류 종자, 양묘용 비료

---

[83](AP=연합뉴스) 북한 평안북도 구장군에서 4일(현지시간) 청소년적십자사 나무심기 행사가 열려 청소년적십자사 회원과 학생들이 묘목을 심기 위한 구덩이를 산비탈에 파고 있다. 봄철 나무심기는 오는 13일까지 북한 전역에서 진행된다. marshal@yna.co.kr.

등을 요청받으며 첫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이후 평화의숲 주관으로 금강산 주변 양묘장 생산지원을 비롯해 평양 순안, 개풍, 평양 중화, 회령 등 양묘장 신규조성과 현대화 사업 등이 추진됐지만 2009년 남북 관계 경색으로 방북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양묘사업 관리가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림분야는 사실상 2002년 현대 아산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고, 이후 2003년 남북청소년 적십자 단원이 참가한 금강산 나무심기행사, 2004년 남북공동나무심기행사, 밤나무 조림지 사업 등이 진행됐다.

3) 하나님나라와 땅의 회복

선교신학의 중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특히 이 화해의 출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신 것이다.(요3:16, 요일4:10) 이 화해의 사건이 바로 성육신(incarnation)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신비한 사건을 이해하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전히 놀랍지 않을 수 없다.[84] 범죄한 인간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 완전히 무지 무능하게 되어 행할 바를 모르고 또한 행할 수도 없었다. 화해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구원론을 요약한 말로서 구원의 기초를 이룬 사건이다. 이 화해의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화목하고 그의 자녀가 됨에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소외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원래의 모습인 피조물의 위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복귀하는 것이다.(엡2:16-19)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었다.(고후5:18) 위로 하나님과 화목 하는 은총을 입은 인간은 사람과 화목해야

[84]D. M. Baillie, *God was in Christ*(London: Faber and Faber, 1961), 119.

한다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화해는 곧 하나님과의 화해를 입증하는 일 이다. 그러기 때문에 적대시해 왔던 북한 동포들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은 화해를 전제로 한 접근뿐인 것이다. 따라서 화해는 통일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역이다. 많은 인명을 헤치면서 이루는 통일론이 아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해로서의 통일이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둘로 하나를 만드는 일은 화해로서의 통일이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둘로 하나를 만드는 일은 화해밖에 다른 방법이나 도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당연히 화해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 민족 복음화와 그리고 교회성장의 기틀을 다져가는 의욕적인 신앙들은 모두 훌륭하지만 교회로서의 맛을 상실한다면 한국교회는 사명 감당에 대한 추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시니라"의 말씀은 한국교회의 북한에 관한 화해사역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으키게 한다.

실제적인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다. 선교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작업이다. 성경은 먼저 왕국을 제시하고 그런 다음 교회를 제시한다.[85] 흔히 선교신학과 선교실제의 상호관계가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신학작업은 원칙주의에 빠져 그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험은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65:20-21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이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85]Gary Keiser, *The Kingdom of God*(Seoul: Korean Church Growth News, 2008),121.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허공의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다.[86] 그러므로 효과적인 정책수립은 선교신학과 실천신학이 교회와 연합하여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학은 결코 안전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교회에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다. 신학은 교회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 한마디로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은 신학을 동반자로 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북한선교를 수행하려면 화해신학을 모토(Moto)로 하여 전개해 나가도록 함으로 북한의 거부감 없는 수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86]Nicholas Thomas Wright, *나를 따르라*, 이혜진역(파주: 살림출판사, 2008), 212.

Ⅳ. 과제시행(Project Enforcement)

1. 당면한 문제

1) 북한의 식량난

북한의 식량난은 1980 년대 말부터 여러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었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1980 년대 말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북한체제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사회주의권 시장의 상실이었다. 이는 그 동안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에서 식량과 에너지의 원조에 의존하였던 북한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두 번째 요인은 1980 년대 말부터 계속된 냉해와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북한 식량난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그들 국가 사이에서 행해졌던 우호무역이 소멸되고, 무역 대금의 결제방식이 청산제[87] 에서 경화[88] 결재로 바뀌어 북한의 무역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소련의 붕괴로 소련에 크게 의지하여 온 석유 등 주요 에너지의 수입이 경화결재를 통하여서는 불가능 하게 되고, 차관공여와 상환기간의 연장이라는 사실상의 원조가 없어지자 북한 경제가 뒤흔들리게 되었다. 한편으로 1989 년 11 월 말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중국의 이붕 총리에게 식료품 등의 긴급 지원 요청[89]을 한 바 있다. 또한 1990 년 대외문화연락협회위원장 정준기는 일본

---

[87]거래 때마다 대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이 경과 후에 채무, 채권 관계를 셈하여 차액만을 결재하는 방식

[88]경화는 국제 금융상 환관리를 받지 않고 금 또는 각국의 통화와 늘 바꿀 수 있는 화폐를 말하며,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유럽 유로 등이 여기에 속한다.

[89]경향신문 1990년 12월 6일자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90] 하는 가하면, 1991 년 초에는 제 3 국 상사를 통해 10 만 t 이 넘는 쌀을 저가 수출해 줄 것을 요청[91] 한 바 있다. 무엇보다 배급제도가 마비되고 분배체계가 왜곡되어 있으며,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심해 식량난이 더욱 가중되도 있다. 지역적으로는 가뭄이 극심했던 북한의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근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도시의 일반 주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떠한 수송난 등 북한체계 내부의 문제점 등으로 지역간, 계층간 고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해마다 어려움을 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1990 년부터 1998 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1990 년 니후 수출과 수입의 감소 추세도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곡물생산량 또한 1993 년부터 1995 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역총액도 대외무역 1990 년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1995 년부터는 절반 이하로 축소되었다.

2) 식량배급제의 마비

북한의 식량배급은 1990 년대에 들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992 년-1993 년경부터는 공급량이 급감하였고, 1995 년 이후에는 아예 배급이 중지된 지역이 늘어나고 있었다. <표 5>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보고서를 통하여 드러난 북한의 식량배급 상황이다. 본 연구자는 식량 배급제의 마비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북한의 장마당이 생겨난 것을 보았다. 아시아프레스 이시마루지로 대표는 북한을 세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말한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물류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 '오토바이 택시'가

[90]경향신문 1990년 7월 4일자

[91]세계일보 1991년 2월 2일자

등장하고, 시외버스의 확산으로 전국적인 교통망이 구축되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물자와 사람 그리고 정보의 이동이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북한 사회 변화 속에 진정 침체된 북한경제를 살릴 동력이 주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당국의 엄격한 통제에도 새로운 돈벌이 수단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생생하고 활력있는 현장에서 북한 경제의 유일한 희망을 보았다.

<표 5> 1995~2001 년 북한의 식량배급상황[92]

연도	국가배급[93]		결산분배[94]
	1 인당 1 일 평균배급량 (기준 배급량 약 600g)	배급중단시기	11 월분배 (1995 년 이전 평균 배급량 260g)
1995	연령을 기준으로 3 등급으로 감량배급	1990 년대 초반에는 약 400 만톤의식량재고보유이를 통해 1994 년까지 배급 유지	약 100Kg(250g/일)
1996	4 월부터 배급량 대폭감소, 5 월경 300g 7 월~9 월 200g 12 월 450g	배급량 감소에도 불구 배급제 지속운영	정상적인 곡물 배급량의 40%이하로 지급.3 월경에 분배된 식량고갈
1997	1/2 월 100~200g 3 월 150g 11/12 월 400g	5/6 월에 지역적으로 배급 중단 시작.7 월말 배 급제의 정상적운영중단	135kg (일부 150g~180g)
1998	1 월 300g 2 월 200g 3 월 100g	3 월부터 8 월까지는 배급중단[95]	146kg(400g/일) 지역에 따라 115kg~195kg 까지 편차

---

[92]출처:유엔식량농업기구.세계식량계획,"Special Report"각 연도.

[93]2000년 국가 배급을 받은 비농업인구는 약 1500만 명

[94]2000년 결산분배를 받은 협동농장원은 약 690만 명

[95]함경북도에는 1998년 국가배급이 없었음

1999	1998.11~1999.4 1 인당 평균 35.5kg (평균 200g/일) 10 월 320g 11- 12 월 300g	4 월부터 배급 중단	연간 1 인당 평균식량 가용량(곡물과 감자) 200kg(500g/일) 일부지역은 260kg
2000	1 월 300g 2 월 259g 3/4 월 200g 5/6 월 150g	곡물수용의 1/3 정도가 국가배급을 통해 충당 도시인구는 농촌지역에 비해 1 인당 가용식량이 20~25% 적음	가을 수확시 1 인당 평균 210kg (575g/일)
2001	2000.11~1001.6 1 인당 평균 215g/일 (전년동기 200g/일) 7~9 월 150g 지급예정		

3) 굶주림과 아사(starve to death)

곡물가격의 폭등은 식료품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져 전 세계의 물가를 끌어 올리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96] 현상을 촉발하고 있기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0년간 지속된 값싼 농산물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진단했다.[97] 이러한 곡물가격의 폭등은 개발도상국과 취약국가의 빈곤과 기아 상태를 더욱 악화하는 식량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식량난민과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져 인도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세계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은 스위스에서 '국제식량위기 긴급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유엔특별실무반을 신설하기도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식량가격의 급등이 전 세계적인 위기로 발전했으며, 전세계의 빈곤과 굶주림,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있는 식량문제의 해결책

[96]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일반 물가도 함께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애그플레이션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97]값싼 식료품 시대 끝났다: 식품 값 상승이 기름 값보다 세계경제 발전에 더 위협적, 뉴스위크지, 2008년 5월 7일.

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고[98] 언급했다. 세계 곡물가격의 폭등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증가한 자연재해, 원유가 상승, 동아시아지역의 수요증가, 바이오 연료인 에탄올 생산을 위한 대량곡물의 유용과 그로인한 식용, 사료용 곡물 재배면적 감소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다. 동아시아에서 장기간 그리고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나를 거론할 때 북한을 제외할 수 없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 일컫는 대량아사사태를 겪은 북한은, 현재 겪고 있는 식량난으로 인해 다시 곳곳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위기상황은 국내유민과 대량 탈북자의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재외탈북자에게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난민의 지위가 부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굶주림과 더불어 극심한 인권유린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2007년 이후 더욱 심화된 경제난으로 인해 보다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은 식량난 해결 등 근본적으로 빈곤문제에 대한 접근 노력 없이는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99]

본 연구자는 이 시대 예언자적 사역으로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 특히 북한지역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아사자가 속출하는 곳이다. 60년이 넘는 단절 속에서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지만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어느 정도 허용되어 있기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행19: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North Korea)은 지금 국제적인 고립과 남북 교류 협력의 단절, 그리고 권위와 계급주의에 대한 어려움 속에 고통 받고 죽어 나가는 것은 가장

[98]유엔, *스위스에서 국제식량위기 긴급회의 개최*(E), Voanews, 2008년 4월 28일.

[99]이금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서울: 평화재단, 2006), 50.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 특히 병들고 가난한 어린이들이다.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아 영육적으로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인도적 측면에서의 예언자적 돌봄과 치유사역을 하고 있다.

2. 대북지원의 원칙

1) 인도적 대북지원

북한은 국제사회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한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원조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총대가 약해 망한 나라는 많아도 기근이 들어 망한 나라는 없다."고 선군정치를 앞세워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촉구하고 있는 데에서도 북한의 선 체제보장 정책기조와 국제사회의 원조에 대한 시각을 읽을 수 있다.[100] 북한과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대화와 협력의 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여러 관련 정책들을 만들어 놓기는 했으나,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의 해외원조에 대한 폐쇄적인 정책은 지원된 물자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다는 의심을 낳게 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식량이 최고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한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지원식량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고 모니터닝 시스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할 때 국제사회의 지원은 증가할 것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적정한 시점에 개발지원으로의

[100]임을출, *국제기구의 북한지원: 현황 평가 및 시사점 북한경제리뷰*(세종시: KDI, 2008), 19.

정책적 전환을 추진하여야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6> 2008년 북한 아사발생지역[101](●: 아사발생지역)

2) 남북 당국간의 소통

북한의 식량 총 공급량이 400만 톤 이하로 떨어지면 식량 절대부족의 징후가 사회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 심각성이 외부에 알려진다. 북한은 현재 경제침체와 식량난 속에서 주민들 대부분이 최소한의 의식주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식량부족으로 인해 최소 10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풀과 나무껍질로 연명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전체인구의 약 25%이상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 받았으며, 영양실조와 질병감염으로 인해 어린이와 노인들의 사망이 계속 늘어났다. 2001년 5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UNICEF회의에 제출한 1990년대 북한의 기근에 관한 보고서에는 식량난의 영향이 잘 나타나 있는데, 식량난과 약품부족으로 평균수명이 73.2세에서 1999년 66.8세로 6년 가량 줄었으며, 같은 기간에 인구

[101]http://www.goodfriends.or.kr/search/search.html, 2014. 03. 20

1천명당 5세 이하의 아동 사망자 수는 27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고, 출생률은 1993년 2.2%에서 1999년 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02]

북한정권이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라를 회복시켜야 하겠지만 오히려 벼랑끝 전술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마치 북한 주민들을 볼모로 외부세계와 협상을 벌이는 듯 한 모습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짐나 뾰족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것이 북한식량 문제의 딜레마이다.[103]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다. 지난 5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선 정상회담 의향을 묻는 질문에 “당장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었다. 그러나 이번엔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뉘앙스 차이가 크다.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북한 핵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아울러 풀어나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박근혜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오히려 이례적으로 진통이 심했다. 개성공단이 가동 이후 처음으로 5개월여 동안 중단상태였고 비록 ‘말폭탄’일지라도 군사적 대치도 어느 때보다 심했다. 그러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순방과정에서 밝힌 '드레스덴 통일구상'이 관심이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통일구상에서 3가지 제안을 내놨다. 첫째, 인도적인 문제 해결 둘째, 민생인프라 구축 셋째,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이다. 이 세 가지 통일 구상이 나온 배경으로 첫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

---

[102]통일연구원, *북한인권 어디까지 왔는가: 식량권 통일로 통권224호*(안보문제연구원, 2007), 54.

[103]동용승, *2008년 북한식량위기 진단과 대북 인도적 지원원칙*(서울: 평화재단, 2008), 41.

문제를 우리 한국이 주도하겠다, 세 번째로는 한반도, 특히 남북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러한 배경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104]

특히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그리고 북한에 있어서 산모 그리고 영유아, 일종의 모자패키지 프로그램 즉 1000 프로그램이 이미 UN기구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대략 1억달러 정도 우리돈으로 1000억원 이상이 든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일부어린이들 의사, 소아과 의사 전문가들 보고서들을 보면 거의 영유아 1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들에게 만약에 한 1달러정도 투자한다면 한 20세 청년이 됐을 때 만달러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도 호감을 가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장 북한에서 필요한 것은 식량이고, 가장 낙후된 부분이 교통, 통신 문제이다. 이 부분을 남북당국 간에 합의하고 협력하는 관계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특히 한국 정부가 남북 간에 위의 세 가지, 남북 주민의 문제, 인민생활 문제 그리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에 기여하는 조치를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아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국제사회와 보조

북한 식량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북한정부에게 있다. 그렇기에 북한정부의 최우선 관심사가 대량 아사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존정책을 바꿀 수 없다고만 고집하지 말고,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식량을 확보하고 긴급구호를 해야 한다. 그래도 식량이 부족하다면 국제사회에 솔직하게 식량사정을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배고픈 이에게는 음식을, 아픈 이에게는 약을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제 더 이상 당사국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현 실태의 공개와

[104]http://www.ytn.co.kr/_ln/0101_201403300959253132.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10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국제사회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꾸준히 해야 한다. 식량지원과 의료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 미치는 효과와 상징성은 다른 지원물자와는 다를 것이다.

3. 대북지원의 형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의 내용도 점차 다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6] 초기의 대북지원이 단순한 긴급구호의 성격을 지녔다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에는 농업지원 및 보건의료 분야 등 점차 전문적인 분야로 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체 대북지원에서 일반 구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농업복구 및 보건의료 분야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107]

긴급구호성의 단순물자를 지원하는 것에서 농업,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전을 이루기는 하였다. 그러나 프로젝트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물량위주의 실적주의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며, 지원결과를 중심에 놓는 사업접근이 미흡하다. 즉, 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된 이후에 어떠한 영향과 파급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108] 기독교계의 대북지원 유형 또한 이러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유형과 많은 차이는 없다. 기독교계는 주로 북한 식량난이 대두된 1990년 이후 참여 하였다. 초기 이들의 대북지원은 주로 식량위주의 긴

---

[105]법륜, *대북인도주의적 지원 원칙에 대하여*(서울: 평화재단, 2008), 21.

[106]최대석, *인도지원에서 개발협력으로의 발전을 위한 과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창립 9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2005) , 8.

[107]통일부, *통일백서, 2005*, 167.

[108]최대석, 앞의 책, 220.

급구호에서 시작하였으며, 전차로 농업지원사업과 보건의료 사업으로 특화하여 지원하는 등 지원형식이 바꾸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빵공장 설립, 육아원 지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의 복지 분야 지원 및 어린이 보건사업, 아동병원 개보수설비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집중적인 지원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있다. 기독교계 대북지원의 유형을 종교관련지원, 일반구호(생필품, 식량지원), 복지지원(취약계층지원), 농업지원,보건의료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종교관련분야

1980 년대 들어 교포 종교인들을 적극초청, 이들과 종교인 회담 및 해외에서 반한 종교인 집회를 갖는 등 전략에 치중하는 한편,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종교단체의 신설과 사찰을 복원하고 법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88 년에는 장춘성당과 봉수교회를 건립하였고, 1989 년에는 칠곡교회를 완성하였으며, 2003 년에는 러시아 정교회인 정백사원을 착공하였다.[109] 북한은 1990 년대 이후 해외의 종교단체들을 초청하거나 해외의 종교단체들과 접촉을 시도했으며, 경제난, 식량난이 가증되자 북한은 종교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남한 종교단체들을 평양에 초청하고 남북한 공동예배, 미사, 법회들을 개최하는 등의 대외할동을 전개하였다.

북한의 기독교를 통괄하고 있는 "조선기독교연맹"은 1946 년 11 월 창립된 "북조선 기독교 연맹"이 모체로서 1960 년에 잠적했다가 1974 년에 다시 등장했고 1999 년 2 월에 "조선기독교연맹"에서 "조선 그리스도교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북한의 식량난이 최고조로 이르자 북한 조선기독교연맹 위원장 강영섭 목사는 1996 년 1 월 29 일부터 2 월 2 일까지 마카오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와

---

[109] 통일부 *2004 년 북한개요*, 430.

연대를 위한 국제 기독교 협의회”에 참여[110]하여 “2 년에 걸린 북한 곡물수확이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한국교회 등 세계 각국의 교회가 식량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달라고 요청[111]하기에 이른다. 기독교계는 ‘사랑의쌀’ 나누기운동본부가 창립되어 국내에 남아도는 쌀로 불우한 이웃(국내 및 북한의 동포와 해외빈민들)에 사랑을 나눠주자는 취지로 모금이 시작되었다. 1990 년 3 월 1 일부터 모금을 시작한 ‘사랑의 쌀’나누기 운동본부(대표:한경직)는 1990 년 7 월 8 일 약 8 백 t 의 쌀을 홍콩을 통해 북측에 전달하였다.[112]

‘사랑의 쌀’ 에 이어 1991 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회원단체인 국제기아대책기구, 기독교 대한 감리회 7 천교회, 2 백만 신도운동본부, 한민족통일선교회, 전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등의 기독교 단체들이 북한 동포들을 돕자는 운동을 전국교회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등[113] 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밖에 한국 선명회가 북한에 쌀 수수 5 백 t 을 지원[114]하고, 북한 동포 돕기 하루 금식운동[115]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종교관련 지원은 대부분 교단이나 교회차원에서 선교를 목적에 두고 종교교류 차원에서 진행하는 지원의 형태이다. 성경찬송가 제작지원 같은 일회성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건축이나 신학원 운영 같은 개발 구호적 성격을 갖는다.

---

[110]이 협의회는 북아메리카, 유렵, 아시아의 12개국에서 온 초교파 교회지도자들 50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기독교련맹의 대표들이 다른 대표들과 함께 참여했다.

[111]김상근.*한국교회평화통일운동 평가와 제언*(한국교회평화통일자료집(1980-200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P16.

[112]국민일보 1990년 12월 18일자

[113]국민일보 1991년 11월 15일자

[114]국민일보 1995년 6월 10일자

[115]전국교회와 기독인들이 지난 1994년 2월 16일부터 오는 4월 3일 사순절 기간 중 하루 1~3끼를 금식해 절약한 돈으로 북한 동포에게 식량을 사서 보내주는 운동이다. 국민일보 1994년 3월 17일자

<표 6> 한국 기독교기반 개발 NGO 의 현황과 특징[116]

1995~2010년 KOICA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독교기반 개발NGO 단체 수

년도	기독교 기반 개발NGO 수	전체 NGO수	기독교 기반 개발NGO 비중
1995년	6	7	86%
1996년	5	7	71%
1997년	8	8	100%
1998년	8	8	100%
1999년	10	10	100%
2000년	9	9	100%
2001년	13	13	100%
2002년	13	21	62%
2003년	12	39	31%
2004년	11	11	100%
2005년	12	22	55%
2006년	10	21	48%
2007년	13	19	68%
2008년	16	33	48%
2009년	18	34	53%
2010년	18	32	56%
총계	182	294	62%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요청을 받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전개되면서 식량, 의류를 비롯한 생활필수품 등 수해피해 긴급구호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식량, 의류 및 생필품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의 구호지원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북한동포돕기’를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1997 년 들어 민간단체들이 보다 근본적으로 식량과 구호품을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고 식량과 의류를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116]출처: 2012년1월 세계기독교정보연구원

<표 7> 한국 기독교기반 개발 NGO 의 현황과 특징도표[117]

일반구호의 지원 품목으로는 식량(쌀, 옥수수, 밀가루 및 빵지원, 농수산물지원, 식생활관련물품, 아동대상 식량지원), 의류(겨울옷,담요 및 이불, 어린이 의류 및 담요), 생활용품 및 시설보수(학용품, 스포츠용품, 장난감등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운송수단, 시설개보수 및 자재지원, 냉난방시설) 등의 지원[118] 이며, 이러한 물품을 지원했거나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월드비전, 국제기아대책기구, 예장통합, 감리회 서부연회, 남북나눔, 한국복지재단, 한민족복지재단, 굿네이버스, 선한사람들, 한국기독교북한동포후원연합회, 유진벨재단, YMCA 전국연맹 등 12 단체이다. 이들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생필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초기 단순한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지원물품의 종류도 다양해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물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시설기자재 지원이나 특정지역, 또는 특수추약계층에 물품을

[117]출처: 2012년1월 세계기독교정보연구원.

[118]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대북지원 10년백서*(서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대북지원민관협의회 통일부, 2005), 71-92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이다. 구호차원의 대북지원으로 북한의 식량사전도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이러한 지원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교계의 구호 활동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119] 구호차원의 대북지원에는 항상 그호물자가 주민들에게 직접분배되고 있는가하는 투명성 문제와 함께 교단이나 기관간의 실적과 명분이 내세운 무분별한 경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표 8> 기독교 NGO 일반구호 지원 현황

	품목	**단체명 및 지역**
1	식량지원, 쌀, 옥수수, 밀가루 및 빵 지원 식생활관련물품 아동대상 식량지원	**쌀**-남북나눔(살), 한국선명회, 유진벨재단, 월드비전(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 **옥수수**-대한예수교장로회, 굿네이버스, 남북나눔,월드비전, 기독교감리회서부연회, 국제기아대책기구, 선한사람들 **밀가루 및 빵**- 대한예수교장로회, 굿네이버스, 남북나눔,월드비전, 기독교감리회서부연회,한민족복지재단,한국복지재단 등 **식품지원(식용유 및 기타)**-월드비전, 남북나눔, 한국복지재단 **아동대상식량지원(분유지원)**-국제기아대책기구, 남북나눔, 한국복지재단, 예장통합, 굿네이버스, 선한사람들(미숫가루) **감자-(밀가루,초콜릿 등)** 남북나눔, 한국 YNCA 전국연맹, 국제기아대책ㄱ기구, 남북나눔(라면), 굿네이버스
	의료지원	월드비전, 국제기아대책기구,예장통합, 감리회서부연회, 남북나눔, 한국복지재단, 한민족복지재단, 굿네이버스, 선한사람들,

[119]임성빈 외, *통합적인 통일과 그리스도인들의 과제 II*(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189.

2	겨울옷,담요 어린이 의류 및 담요	한국기독교북한동포후원연합회, 북한중국 두레마을 추진본부
3	생활용품 및 시설보수 (학용품, 스포츠용품, 장난감등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운송수단, 시설개보수, 자재지원 냉난방시설	기독교감리회서부연회-문구,축구공, 연탄, 전기방열기, 냉온풍기, 복사기 굿네이버스-인쇄용지, VTR_TV 및 어학실습자재, 인라인스케이트, 보일러, 연탄난로, 온풍기, 라지에이터, 교육기자재ㅡ 육아원, 신축공사, 및 초등학교건립사업 등대복지회-체육용품 및 기자재 한국복지재단-보육용품, 병원개보수기자재, 전기히터, 냉난방기 국제옥수수재단-자전거, 세면용품 한민족복지재단-고무장갑 한국 YMCA 전국연맹, 유진벨재단, 국제기아대책기구-장난감, 아동용품, 정수기

2) 보건복지분야

복지 분야지원 사업은 최근에 들어와서 일반구호 분야와 구분되었기 때문에 지난 10 년간의 대북지원 사업을 정리할 때 일반구호와 복지 분야지원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 두 분야의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원대상이 특정되어 있는지, 단순한 물자 지원이 아닌 프로젝트 성격의 사업인지를 기준으로 하였다.[120]

기독교계의 복지 분야지원 사업은 북한 취약계층 중에서 주로 5 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는 식량난에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장애 및 발육부진을 피해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기독교계의 복지 분야지원 사업은 아동급식지원 사업이 주를 이룬다.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초기

[120]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대북지원 10년백서* (서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대북지원민관협의회, 2005), 151.

북한의 접경지역인 단둥, 도문 등지에서 빵을 만들어 전달하거나 식량을 지원하다가 이후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제빵공장, 국수공장, 콩 우유 공장 등을 설립 및 운영 지원을 통해 평양 및 지방의 육아원, 탁아소, 소학교 또는 특정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분유, 빵, 우유, 계란, 콩 우유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복지 분야지원 사업은 대북지원 초기 단순 물자지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의 유아 및 어린이 등 특정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모색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제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 차원을 넘어 개발지원을 바라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차이를 극복하여 평양 인근의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의 어린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9> 기독교 NGO 복지분야 지원 현황

	품목	단체명 및 지역
1	빵	국제기아대책기구(라선시 라선식품가공회사) 등대복지회(평양, 평화의 빵, 우유공장 및 사리원 빵공장) 한국복지재단(만경대 구역 통일 빵공장) 한민족복지재단(평양, 평화의 빵 공장)
2	콩우유, 및 우유	등대복지회(사리원 콩우유공장, 평양 빵우유공장) 굿네이버스
3	콩기름	선한 사람들(펴양, 콩기름, 공장설립)
4	국수	월드비전(개천, 안주, 선천, 원산, 신창 국수공장)

3) 의료구호분야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은 1999 년 2 월 민간 대북지원 지원 창구다원화 조치로 대북 지원창구가 확대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기독교계 단체의 의료보건 분야 지원사업은 대부분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지원에서 출발하여 병원, 제약공장 설립 및 시설복구 협력사업 등의 지원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에 대한 비타민 및 영양제 등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지원 등의 의료분야 지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원은 대부분 평양 등 대도시에 소재한 육아원 및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쉬운 면이 있다.

<표 10> 기독교 NGO 보건의료 분야 지원 현황

	항목	단체 및 주요활동
1	결핵관련 사업	유진벨재단(결핵백신 치료약, X-RAY 검진차 지원, 결핵예방원, 요양소, 병원등 결핵치료에 주려) 선한사람들(결핵약품 및 검사장비 지원) 한민족복지재단(조선의학협회 결핵약 지원) 예장통합(유진벨 재단을 통해 북한 보건부 지원)
2	의약품 의료기자재 장비지원	한국복지재단, 굿네이버스(평양제 2 인민병원 및 육아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샘복지재단(왕진가방 및 의약품 및 의료품) 국제기아대책기구(의약품 및 X-RAY 기기 등의 의료장비 지원) 등대복지회(평양적십자병원 의약품 및 안과진료차량지원) 월드비전(어린이 보건사업-의약품 및 구급차 의료기술지원) 한민족 복지재단(의약품지원) 세계밀알연합회(의약품지원) 민족사랑나눔(의약품지원) 장미회(간질화관련 의약품지원 및 의료기자재 지원) 인터내셔널 에이드(의약품지원) YMCA 그린탁터스(개성공단내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3	병원건립 제약공장시설 복구협력사업	굿네이버스, 한국복지재단(평양ㅈ 2 인민병원 아동병원 개보수 및 설비 앰블런스 및 침대 의료기기 지원) 굿네이버스(병원신축사업 및 수액제 공장 설립, 캡슐항생제 생산공장) 한민족 복지재단(병원현대화 사업-병원개보수) 국제기아대책기구(수액재 생산공장 설립, 수자원 개발 및 정수시설지원) 한국복지재단(병원현대화사업-병원개보수) 동북아문화재단(평양종합의료센터) 장미회(종양연구소 현대화 사업, 안질환전문병원 설립사업) YMCA 그린닥터스(개성공단내 병원설립)
4	보건교육 정보제공 훈련, 시술	굿네이버스(보건의료인력교육, 남북의료인 교류 토론회) 한민족복지재단(북한 의료인 대상 수술현장 세미나실시) YMCA 그린닥터스(개성공단내 의료시술)

<표 11> 북한 육아원 현황

육아원명	예상 아동수	소재지
평양육아원	200 명	평양시
남포육아원	200 명	남포시
해주육아원	400 명	황해남도 해주시
사리원육아원	400 명	황해남도 사리원시
원산육아원	300 명	강원도 원산시

혜산육아원	400 명	양강도 혜산시
청진육아원	400 명	함경북도 청진시
신의주육아원	300 명	평안북도 신의주시
룡천육아원	300 명	평안북도 룡천군
개성육아원	200 명	개성시
평성육아원	400 명	평안남도 평성시
희천육아원	400 명	자강도 희천시
강계육아원	400 명	자강도 강계시
함흥육아원	400 명	함경남도 함흥시

<표 12> 정부 및 민간차원 대북지원현황

대북지원 현황

□ 정부 및 민간차원 무상지원액 세부내역 : 총 21억 7,786만불(23,324억원)

기간	정 부 차 원	민 간 차 원	합 계
1995	**23,200만불 (1,854억원)**	**25만불 (2억원)**	**23,225만불**
	쌀 15만톤	담요 8천매	**(1,856억원)**
	직접 지원	국적 경유	
1996	**305만불 (24억원)**	**155만불 (12억원)**	**460만불**
	CSB, 분유, 기상자재	밀가루, 분유, 식용유	**(36억원)**
	UN기구 경유	국적 경유	
1997	**2,667만불 (240억원)**	**2,056만불 (182억원)**	**4,723만불**
	CSB, 옥수수, 분유, 보건의료 등	옥수수, 밀가루, 감자, 라면 등	**(422억원)**
	UN기구 경유	국적/남북적십자 경유	
1998	**1,100만불 (154억원)**	**2,085만불 (275억원)**	**3,185만불**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밀가루, 옥수수, 비료, 한우, 비닐, 등	**(429억원)**
	UN기구 경유	남북적십자 경유	
1999	**2,825만불 (339억원)**	**1,863만불 (223억원)**	**4,688만불**
	비료 11.5만톤	밀가루, 옥수수, 약품, 비료 4만톤 등	**(562억원)**
	직접지원	한적 / 독자창구(2.10~)	
2000	**8,139만불 (978억원)**	**3,238만불 (387억원)**	**11,377만불**
	비료 30만톤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1,365억원)**
	직접지원	한적 / 독자창구	
2001	**7,522만불 (975억원)**	**6,017만불 (782억원)**	**13,539만불**
	내의 150만벌, 옥수수 10만톤. 비료 20만톤, 말라리아 방역지원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1,757억원)**
	직접지원/WFP/WHO경유	한적 / 독자창구	
2002	**8,915만불 (1,140억원)**	**4,577만불 (576억원)**	**13,492만불**
	옥수수10만톤, 비료30만톤, 말라리아방역	농기계,의류,의료장비,씨감자 등	**(1,716억원)**
	직접지원/WFP/WHO경유	한적 / 독자창구	
2003	**9,377만불 (1,097억원)**	**6,386만불 (766억원)**	**15,763만불**
	말라리아 방역지원, 취약계층 지원,비료 30만톤, 옥수수 10만톤	동내의, 아동복, 밀가루, 항생제 등	**(1,863억원)**
	직접지원/WFP/UNICEF경유	한적/ 독자창구	

기간	정 부 차 원	민 간 차 원	합 계
2004	11,541만불 (1,313억원)	13,250만불 (1,558억원)	24,791만불
	의약품, 긴급구호세트, 비료 30만톤 말라리아 방역지원, 옥수수 10만톤	농자재, 피복, 감귤, 의료설비 등	(2,871억원)
	직접지원/WFP/WHO경유	한적/독자창구	
2005	13,588만불 (1,360억원)	7,666만불(779억원)	21,254만불
	말라리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비료 35만톤, 수해응급구호, 취약계층	밀가루, 의료설비, 농업용비닐 등	(2,139억원)
	직접지원/WHO/UNICEF경유	한적/독자창구	
2006	22,740만불 (2,273억원)	7,088만불(709억원)	29,828만불
	비료 35만톤, 수해복구 지원, 말라리아 방제약품, 영유아 지원	밀가루, 의류, 의료설비, 수해복구 등	(2,982억원)
	직접지원/WHO/UNICEF경유	한적/독자창구	
2007	20,893만불 (1,983억원)	9,568만불(909억원)	30,461만불
	비료30만톤, 성홍열, 구제역, 산림병충해 방제품, 수해복구, 말라리아 방제약품, 영유아, 식량 지원	의류, 의료설비, 연탄, 농자재 수해복구 등	(2,892억원)
	직접지원/WHO/WFP/UNICEF경유	한적/독자창구	
2008	3,996만불 (438억원)	6,460만불(725억원)	10,456만불
	말라리아 방제품, 영유아, 의료장비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의류, 농자재, 연탄, 양묘장 자재 등	(1,163억원)
	직접지원/WHO/WFP/UNICEF/IVI경유	한적/독자창구	
2009	2,420만불 (294억원)	2,858만불(377억원)	5,278만불
	말라리아 방제품, 영유아지원, 의료인력교육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식량, 의약품, 생필품, 연탄 등	(671억원)
	직접지원/WHO/IVI/UNICEF 경유	독자창구	
2010	1,780만불 (204억원)	1,748만불(200억원)	3,528만불
	신종플루 지원 신의주 수해지원[1]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밀가루, 분유, 옥수수, 의약품, 의류 등	(404억원)
	직접지원	한적/독자창구	
2011	565만불 (65억원)	1,173만불(131억원)	1,738만불
12월현재	영유아, 의약품지원	분유, 두유, 의약품, 밀가루, 말라리아 방역욕품 등	(196억원)
	UNICEF 경유	독자창구	
합계	141,573만불 (14,731억원)	76,214만불 (8,592억원)	217,786만불 (23,324억원)

1) '11.2 정산이 완료되어 '11년도 통계에 계상되었던 '10년도 수해지원액(72억원)을 실제 지원연도인 '10년도 지원액에 포함 정정('11.6)

*자료출처: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 251호(21125.1~5.31)

4) 농업지원분야

구호성격의 식량지원은 1996 년 시작되었지만 민간단체의 농업협력이 본격화 된 것은 1980 년경이다. 유엔개발계획은 2 차례의 원탁회의를 통해 여러국제기구와 다수의 국가를 북한의 농업개발계획인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사업에 참여시켰다. 농업지원 분야의 지원은 초기 식량을 직접 지원하던 방식에서 1998 년 이후 비료, 약품지원, 종자 및 육종사업, 농자재 및 설비지원, 젖소 및 염소지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이 물자교류에 한정되어 있어 기술이나 인력교류 등의 교류가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독교계의 대북지원에서 농업분야의 지원규모는 일반 구호 및 취약계층지원, 의료분야 지원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점차 농업분야의 비중과 성과가 커지고 있고, 또한 많은 단체들이 농업분야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 기독교 NGO 농업 분야지원 현황

	항목	단체 및 주요활동
1	종자,육종사업	국제옥수수재단(옥수수육종) 선한사람들(옥수수종자) 월드비전(과수 및 채소 육종사업, 씨감자 기술지원)
2	비료지원, 약품지원	국제기아대책기구(유기질비료) 선한 사람들(비료) 대학생선교회(동물약품지원)
3	젖소, 젖염소지원	굿네이버스(젖소) 한국대학생선교회(젖염소)

4	설비지원 농자재 기계지원	굿네이버스(우유생산기자재, 양계설비) 남북나문(채소수경재배 시설지원) 월드비전(태양열 온실설치지원, 씨감자 생산시설) 국데기아대책기구, 국제옥수수재단(영농자재) 한국대학생선교회(축산장비) 한민족복지재단(농기계 및 영농자재)

4. 겨레사랑 활동

본 연구를 통해서 대북지원 운영과 활동은 크로스 선교회 그리고 사단법인 겨레사랑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확정하고.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121] 그 목표는 남북관계의 발전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이고, 통일기반의 구축이다. 통일부는 2013년에 7,238억원을 2014년에는 6,802억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지속 추진(884억원) 당국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쌀 40만톤, 비료 30만톤의 지원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5,918억원)하였다. 이에 발맞춰 대북지원 운영과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1) 사단법인 겨레사랑

(1) 크로스미션의 출발

[121]통일부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서울: 통일교육원, 2013)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북가주 지역에서 1997년에 태동되었다. 수해, 배고픔, 그리고 각종 질병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 특히 영양부족으로 일찍 죽을 수 밖에 없던 북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기관으로 출발되었다. “북한 어린이에게 생명의 웃음을”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대상을 북한 어린이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크로스미션(CROSS MISSION)이라는 명칭으로 미국전역을 조직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현지에서 직접 전달하는 선교기관으로 거듭났다. 이 사역의 태동은 현 회장으로 있는 이재민 장로이다.

북한 현지에서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영양죽 원료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직접 북한의 영양제 공장에서 전달함으로써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면을 보여 주고 있다. 방북 할 때마다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세트와 북한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학용품과 영양식이 포함된 “사랑의 선물세트”, 북한 주민들을 위한 어른용 선물세트 등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수해피해가 큰 지역의 북한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해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약품들로 가득 찬 Container 를 계속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 뉴욕을 비롯한 7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122]

(2) 사단법인 겨레사랑

크로스선교회를 통해 북한을 직접적으로 도와 왔으나 해외동포만이 이 사역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민족 전체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2012년 6월에 통일부에 북한 민간지원단체로 신청을 내게 되었다. 한국의 기독교 교계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형성하고 2013년 2월에 창립 예배를 열었다.

[122]http://www.thecrossmission.org/

이사장에는 감리회감독회장을 역임한 신경하 감독, 그리고 부이사장 에는 순복음 여의도교회 이영훈목사 CTS방송국사장 구본홍, 크로스미션의 이재민 장로, 송암기획의 김홍규사장 등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유기남 상임회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겨레사랑은 크로스미션의 실제적인 사역의 중심이었지만 그때 까지는 후방에서 지원만을 행하여 왔다. 그러나 미주동포 중심인 크로스미션의 한계를 보면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복음적인 사명을 갖고 겨레사랑을 창립하게 이른 것이다. 창립 이후 미주 지역에 뉴욕/뉴저지를 중심으로 겨레사랑 USA EAST, 조지아/텍사스를 포함한 겨레사랑 USA SOUTH,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겨레사랑 USA WEST를 조직하였다.

겨레사랑은 그 동안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로 인하여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을 도우며 사역을 계속해 왔다. 굿피플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굿피플도 자체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시민대학이라는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단체의 사역이 겨레사랑을 통하여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크로스미션도 독자적으로 지원 할 수 없기 때문에 겨레사랑이 앞장을 설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겨레사랑은 분유와 빵 재료을 공급하며 및 영양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민간지원단체가 북한의 평양을 중심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겨레사랑은 지방에 이르기까지 그 사역의 범위가 넓다. 지방의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 진료를 해주고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해 주고 있으며, 평양에 동평양제약공장을 설립하고 의약품을 제공해 오고 있다. 2013년부터는 북한 전역에 100개의 진료소 건립운동을 하고 있다.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시설을 보면서 100개의 진료소를 새롭게 건축하여 의약품, 의료소모품 그리고 의료 기자재 등의 공급을 통하여 주민들을 치료하고 돌보면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또 한

가지의 사역은 북한의 어려움과 배고픔의 근본은 산에 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녹화운동을 하고 있다. 산림녹화를 단순히 묘목장을 건립하는 수준이 아니고 헐벗은 산림전체에 관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였다. 지금도 쉴 틈 없이 북한에 찾아가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이 땅에서 도울 자들을 찾아 섬기는 사역이 겨레사랑의 사역이다. 겨레사랑은 기독교방송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모금운동과 미디어 홍보를 함께하기로 하였으며, 그리스도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남북통일지원을 위한 각종 세미나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겨레사랑은 이제 시작 같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섬겨온 사역이기에 어느 민간단체보다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2) 겨레사랑의 지원현황

(1)의약품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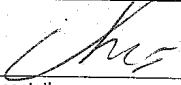
북한에 수많은 NGO를 통한 의약품 지원이 있다. 겨레사랑은 미국의 크로스 선교회와 함께 미국의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아 매년 수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컨테이너로 지원하고 있다. 한번 보낼 때 마다 한 컨테니어로 보내게 되는데 컨테이너 한 개의 가치는 시장가 기준으로 수 백만불에서 일 천만불 이상이 된다. 약의 종류는 다양하여 항생제, 진통제, 당뇨약, 요실금 치료약, 우울증 치료약, 피임약, 항히스타민, 변비약, 감기약, 심장약, 엘러지약, 안약, 해열 진통제등등 전반적으로 필요한 약들이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방문 할 때마다 특별한 약통을 준비하여 영양제, 항생제, 해열제 등을 따로 준비하여 보내 주기도 한다. 약은 일반인은 물론 의사, 약사에 이르기까지 선호하는 귀한 지원물이 되고 있다.

<그림7> 의약품 기증서

LOK FOUNDATION, USA

무 상 기 증 서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앞

LOK FOUNDATION, USA 는 순수한 동포애적 가슴을 담아 아래와 같이 적선된 물품을 무상으로 기증합니다.

-아래-

1)물품내역: DRUGS AND MEDICAL GOODS
2)수량: 1container
3)원산지: U.S.A.

상기 물품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므로 필요한 곳에 사용한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1일

LOK FOUNDATION, USA

Representative

<표14> 의약품 명세서

4차 Container용 약품 List. (13.9.27)

* Item Shipped Directly from Vendor

Purchase Order No.	Customer ID	Salesperson ID	Shipping Method	Payment Terms	Req Ship Date	Master No.
	S A M01				9/11/2013	3,287

Ordered	Shipped	B/O	Item Number	Description	Site	UOM
6,357	6,357	0	00573-0154-89	Ibuprofen Tablets 200mg 2-Tablet Pkts of 50	WAREHOUSE	Each
			79484A	6,357 진통제		
43,878	43,878	0	00143-9853-75	Amoxicillin&Clavulanate Potassium Suspension	WAREHOUSE	Each
			BD079A	3,139 항생제		
			BD078A	2,208		
			BD078A	2,775		
			BD080A	3,640		
			BD078A	3,360		
			BD077A	3,360		
			BD077A	3,360		
			BD077A	3,360		
			BD077A	3,360		
			BD077A	3,360		
			BD077A	3,384		
			BD077A	3,360		
			BD077A	3,340		
			BD077A	1,872		
6.890	6,890	0	66993-0190-20	Dorzolamide HCl/Timolol Maleate Ophthalmic S	WAREHOUSE	Each
			2037140	6,890		
2,592	2,592	0	68016-0316-06	Acetaminophen Oral Suspension 160mg Btl 118m	WAREHOUSE	Each
			X201098-1	2,592 해열 진통제		
4,800	4,800	0	00591-5782-01	Atenolol/Chlorthallidone Tab 50/25 mg Btl 10	WAREHOUSE	Each
			525998M	4,800 혈압약		
4,368	4,368	0	00363-0459-30	Nightime Cold/Flu Syrup 177ml Btl	WAREHOUSE	Each
			2CK0398	2,184 감기약		
			2CK0398	2,184		
6,720	6,720	0	00591-3206-30	Pioglitazone Tabs 30mg Btl 30	WAREHOUSE	Each
			G24250	6,720 당뇨약		
1,800	1,800	0	16477-0160-20SAM	Chlorcyclizine HCl/Phenylephrine HCl Tablets	WAREHOUSE	Each
			12D005	1,800		
8,640	8,640	0	52544-0982-31	Drospirenone/Ethinyl Estradiol Tabs 3mg/0.02	WAREHOUSE	Each
			506766AA	2,160 피임약		
			506766AA	2,160		
			506766AA	2,160		

* Item Shipped Directly from Vendor

Purchase Order No.	Customer ID	Salesperson ID	Shipping Method	Payment Terms	Req Ship Date	Master No.
	S A M01				9/11/2013	3,287

Ordered	Shipped	B/O	Item Number	Description	Site	UOM
			506766AA	2,160		
2,160	2,160	0	00143-9853-16	Amoxicillin&Clavulanate Potssium Oral Suspen	WAREHOUSE	Each
			BD080B	2,160 항생제		

<그림8> 의약품에 대한 감사편지

필요한 약을 보내주어 고맙습니다.

보내준 약으로 환자들을 치료해주니 반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약품을 더 많이 보내주길 바랍니다.

보내준 약이 좋습니다.

앞으로 필요되는 약은,

○ 아목실린, 디곡신, 아트레포스, 술파메톡사졸,
5% 포도당, 20% 포도당, 메트로니다졸, 오메프라졸,
레보미졸, 암피실린, 파라세타몰, 세프트리악손,
진통정, 페니실린, 마이신, 소아영양제, 비타민제

○ 붕대류, 눈약, 연고제.

○ 왕진용 가방세트, 산부인과 설비, 소아과설비 및 기구.

○ 복부초음파,

○ 발동발전기,

※ 환자후송용 뜨락또르,

※ 보철환자 의자, 책상, 보철탁,

원장 리문찬.

주체102(2013). 11. 22.

원강리 인[illegible]병원

의약품 지원은 의약품을 준비하고 선적하여 도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비를 준비하여 진행되고 있다. 의약품 지원은 진료소의 건립에 따른 후속 지원 사업으로 그 규모가 점차로 확대 되어 갈 것이다.

(2)진료소 사업

①추진경위

▮북한에 200개의 군이 있고, 군마다 진료소가 있으나 시설의 노후와 의약품 부족으로 거의 진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수차례 의료진이 방북하여 치료를 해 주었으나 계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관계로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

▮반면에 현재 북한은 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등)가 다양하게 양성되어 준비되어 있는 상태임.

▮통일을 대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통하여 남북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임.

▮통일 후 진료소가 후원 교회와 함께 함으로써 선교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음.

②건립계획

▮북한 지역의 200개 군 가운데 100개 군에 새롭게 건립하는 운동을 북한 보건성과 합의를 하였음.

▮현 진료소는 건물의 낙후함 있어 진료소의 새 건물 건설로 방향을 잡음.

▮진료소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의약품을 중앙공급처에서 배송하기로 함.

③진행과정

▮1차 진료소:믿음진료소- 황해남도 삼천군에 새 건물 건설

▮2차 진료소:나성진료소- 황해남도 신원군 월당리에 새 건물 건설

▮3차 진료소:남포시 용강군 신흥리에 새 건물 건설

▮4차 진료소:강원북도 세포군에 새 건물 건설

▮5차 진료소:평양시 역포구역

④진료소 건립을 위한 단계

▮후원교회신청

▮사전답사–우선적인 지역을 당국과 선정하여 답사함

▮기공식

▮건축에 필요한 자재 공급

▮의료기자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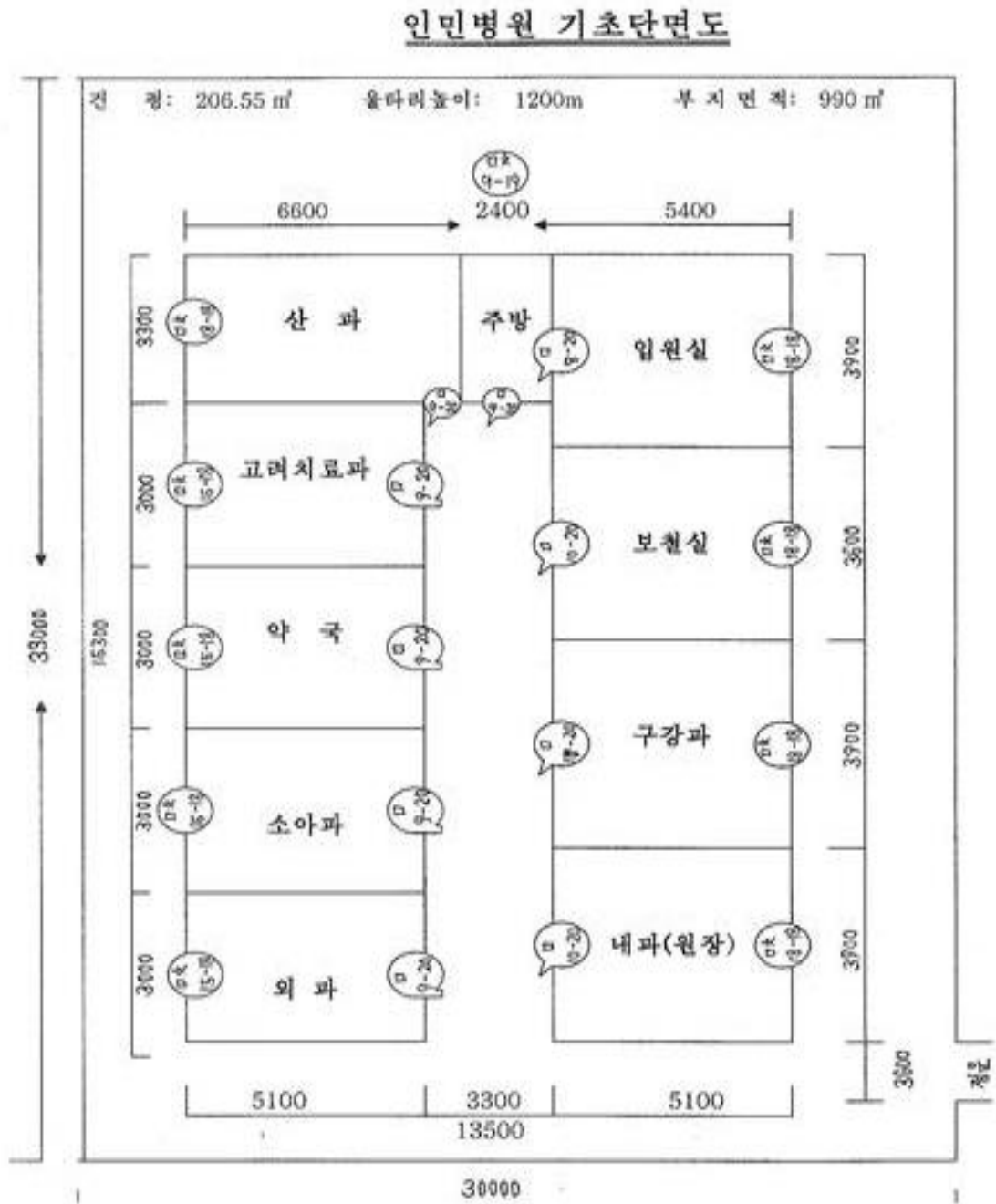
▮약품지원

▮준공식답사

▮의료기술 전수교육

⑤진료소 새 건물 건축 및 지원 내역

종목	내역
건축자재비	지붕재, 천장재, 창문, 전기시설, 조명시설, 페인트, 수도시설, 화장실, 타일 등 바닥재, 문짝 및 손잡이 등
진료소 의료 및 일반장비	산부인과 진료대, 발전 발동기, 산부인과침대, 혈압기, 청진기, 등 병원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구 일체
치과기구	치과진료대, 토치, 석고, 석션팁, 포터블유니트, 조각도 세트, 발치 및 보철관련 기구일체
진료소 의약품	항생제, 소염진통제, 해열제, 진통제, 안약, 감기약, 혈압약, 당뇨약, 엘러지약 등
현지 노동력 동원	
기타	

<그림9> 진료소 설계도면 / 제 1차 진료소(믿음 진료소: 황해남도 삼천군 련평리)

<그림10> 건립 전 련평리 인민병원(진료소)

<그림11> 제 1차 새 건물 믿음진료소

<그림12> 후원자들과 현지 의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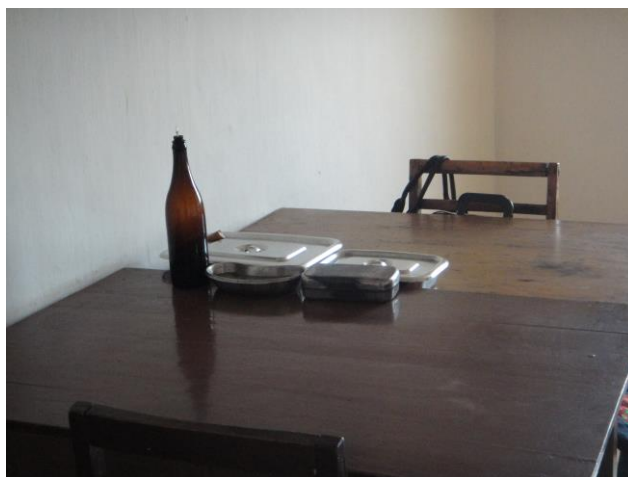
<그림13> 의약품 전달식

<그림14> 방문의사와 현지의료인

<그림15> 월당리 전 진료소 제2진료소(나성진료소:황해남도 신원군 월당리)

<그림16> 약국

<그림17> 월당리 진료소 내부

<그림18> 진료소 내부

<표15> 진료소 건설자재 명세서

진료소건설자재명세

NO	품 명	규 격	수량
1	지붕재(영마루,고정못포함)	211.4평	
2	알루미니움정문	2.7m×2.5m	
3	플라스틱창문	1.8m×1.8.m	7개
		1.8m×1.5m	4개
		1.8m×0..9m	1개
4	양쪽으로 열리는문	2.05m×1.27m×0.25m	5개
5	한쪽으로 열리는문	0.91 m×2.13m	4개
6	경 첩		28개
7	좌물쇠		9개
8	좌변기		2개
	소변기		2개
	씽크대(수도꼭지포함)		5개
	걸래씽크대(수도꼭지포함)		1개
	바닥타일		25㎡
9	수도관	구경20미리미터 구경32미리미터	40미터 40미터
10	전기선	동선구경2.5미리미터	250미터
11	전원코드		48개
12	스위치		18개
13	조명등		18개
14	책상/의자		11조
15	개별 의자		12개
16	약장		3개
17	책장		4개
18	침대 (1인용)		8개
19	침대함		8개
20	위생복		15벌
21	바닥방수타일		600장
22	페인트(흰)		16통
23	페인트(쥐)		5통
24	페인트(밤)		4통
25	페인트 도색기구	1대	
26	지붕삼각틀		2개
27	지붕용접봉,나사,공기총등		
28	천정		250평방
29	천정틀		40개

<표16> 병원자재와 약품명세

序号	品名/품명	单位/단위	数量/수량
一、器械			
1	血压计/혈압기	台/대	15
2	听诊器/청진기	台/대	15
3	体温计/체온기	个/개	30
4	压舌板/혀누루기	包/봉지	1
5	扣诊锤/타진용망치	个/개	6
6	视力表/실력표	个/개	1
7	托盘/의료오봉	个/개	10
8	输液架/수액툴	个/개	5
9	广口瓶/솜병	个/개	22
10	氧气瓶/산소병	个/개	3
11	氧气表/산소흡수기	个/개	3
12	妇科检查床/산부인과침대	个/개	1
13	妇科检查灯/산부인과검사등	个/개	1
14	一次性臀垫/1회용받침띠	个/개	200
15	一次性检查手套/1회용장갑	付/조	200
16	扩张器/확장기	个/개	10
17	治疗巾/치료붕대	个/개	200
18	大棉签/나무솜	袋/봉지	240
19	注射器1m/1회용주사기	支/개	200
20	注射器5m/1회용주사기	支/개	200
21	止血钳大/모스키트대	个/개	30
22	止血钳小/모스키트소	个/개	10
23	止血钳弯/치혈보스키트	个/개	20
24	持针器/지침기	个/개	10
25	线剪/선가위	个/개	10
26	拆线剪/실가위	个/개	3
27	针线/바늘실	个/개	10
28	刀柄/칼대	个/개	5
29	刀片/칼날	个/개	50
30	拉钩/코	个/개	10

31	镊子大/핀센트대	个/개	10
32	镊子小/핀센트소	个/개	10
33	吸引器/산부인과기구	个/개	1
34	手术床/수술침대	个/개	1
35	无影灯/무영둥	个/개	1
36	器械台/기구대	个/개	1
37	高压消毒器/고압소독기	个/개	1
38	酒精/알콜	瓶/병	300
二、药品			
1	螺内酯片/라내지편	瓶/병	10
2	速尿片/속료편	瓶/병	10
3	氢氯噻嗪片/칭로세소편	瓶/병	10
4	扑尔敏针/푸엘민주사	盒/통	10
5	利巴韦林针/린파위린주사	盒/통	10
6	头孢曲松纳针/투포주사	支/대	100
7	青霉素纳针/베니씨링주사	盒/통	100
8	甲硝唑针/가소조주사	支/대	100
9	阿奇霉素针/아치메수주사	支/대	100
10	速尿针/속료주사	盒/통	10
11	庆大霉素针/경대미수주사	盒/통	10
12	地塞米松针/지새미송주사	盒/통	10
13	甘露醇针/감로춘주사	瓶/병	100
14	过氧化氢/과양화경	瓶/병	200
15	左氧氟沙星针/싸싱주사	瓶/병	100
16	碘伏/소독약	瓶/병	200
17	新洁尔灭/소독약	瓶/병	200
18	卡托普利片/카토프리편	瓶/병	100
19	阿司匹林片/아스피림편	瓶/병	200
20	心痛定片/심통정편	瓶/병	100
21	依那普利片/리나프리편	瓶/병	50
22	消心痛片/소심통편	瓶/병	100
23	普罗帕酮片/프로파통편	瓶/병	50
24	硝酸甘油片/소산감유편	瓶/병	10

25	左氧氟沙星片/좌양후싸싱편	盒/통	100
26	奥美拉唑片/오미라조편	盒/통	46
27	速效胶囊/감기약	板/판	4
28	碳酸氢钠片/탄산경나편	瓶/병	100
29	扑热息痛片/프열씨통편	盒/통	5
30	多酶片/다매편	盒/통	100
31	黄连素片/황편소편	盒/통	100
32	阿莫西林片/아모씨림	盒/통	200
33	红霉素片/홍미수편	盒/통	25
34	环丙沙星片/싸싱알약	盒/통	200
35	复方新诺明片/신나명편	盒/통	5
36	去痛片/정통편	盒/통	5
37	咳必清片/기침약	瓶/병	200
38	土霉素片/토미수	盒/통	4
39	普萘洛尔片/푸나라엘편	瓶/병	100
40	复方降压片/혈압내리는약	盒/통	100
41	头孢氨苄胶囊/투포	盒/통	100
42	氢氧化铝片/경양화려편	瓶/병	100
43	复方甘草片/기침약	瓶/병	100
44	咽炎片/편도약	盒/통	100
45	利多卡因针/리도카인주사	盒/통	10
46	氨茶碱针/만차겸주사	盒/통	5
47	心律酮针/심률통주사	盒/통	10
48	654-2针/위병주사	盒/통	10
49	止血敏针/치혈민주사	盒/통	10
50	环丙沙星针/싸싱주사	瓶/병	120
51	葡萄糖针/포도탕	瓶/병	520
52	盐水/염수	瓶/병	520
53	多巴胺针/림바안주사	盒/통	5
54	药栓/부인약	盒/통	100

55	50KW발전발동기	대	1
56	위생복	불	50
57	신발	컬	50
58	모자	개	50

<그림19> 각종 진료소 자료 지원수송

<그림20> 진료소 기공식

<그림21> 진료소 건축 현장

<그림22> 골격을 세운 진료소

<그림23> 완공된 진료소

<그림24> 지원되는 의료기자재들

<그림25> 진료소 개소식

위의 사진들을 통하여 인식된바 후원자 들이 보내어준 대금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지원해 주며, 북한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진료소가 건립되고 있다. 북한에는 진료소 당 의료인이 6~7명이나 준비되어 있지만, 약과 의료기구가 없어 거의 휴진 상태였다. 겨레사랑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고 지원해 준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겨레사랑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북한 전역에 100개의 진료소 건립 운동을 진행 하고 있다.

<그림26> 진료소 건립 진행 지도

3)겨레사랑 숲

(1)취지

①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최악 수준

2012년 발표된 영국 위험관리 컨설팅회사 메이플크로프트의 '산림황폐화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최고위험 국가에 속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북한 산림의 약 32%(284만 ha)가 헐벗은 산지라고 추산한다. 이우균 고려대 교수(환경생태공학부)는 "1999～2008년 북한의 황폐지 면적은 74%나 늘어났다"고 말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최근 발표한 '2013 인간개발지수(HDI)' 보고서에서도 2010년 기준 북한의 육지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총면적의 비중은 47.1%에 불과했다. 남한은 63%다. 이 보고서는 "1990～2010년 남한의 산림 면적은 2.3% 줄어든 반면 같

은 기간 북한은 30.9%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산림벌채와 다락밭(산비탈에 만든 계단식 밭) 개간을 위해 산림을 파괴한 데 따른 것이다. 산림이 사라지면서 홍수피해가 빈발하고 이로 인해 농경지가 황폐화되면서 식량 사정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②북한도 환경 문제에는 호응할 개연성 높아

북한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김일성종합대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펄프공장과 생활오수, 북한 무산철광에 의해 두만강 오염이 심각해지자 중국과 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산림녹화도 계기만 마련되면 북한이 적극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2007년 12월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 위원회’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에 양묘장을 조성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해 가기로 합의했으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당국 차원의 협력은 전면 중단됐다. ‘겨레의 숲’ 등 민간단체의 양묘장 조성과 방제 지원도 2010년 5·24조치(대북지원, 경협 금지) 이후 금지됐다.

③남북한이 산림협력에 의지가 있다.

남북한 모두 산림협력에 의지가 있고 준비가 된 만큼 정치적 결단만 이뤄지면 북한 산림녹화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산림청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에서 조림이 필요한 대상 지역 분석을 끝내 놓은 상태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정치적 명분도 있고 실리도 큰 만큼 한국정부만 의지를 보이면 산림녹화 사업에는 북한도 곧바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국정목표로 설정한 박근혜 정부는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그린 데탕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사업계획

①사업의 목적

황폐한 북한 땅에 나무를 심어 언젠가 다가 올 통일 후 민족의 미래를 푸르게 한다. 다른 일들과 달리 식수 사업은 장기간의 실천적 계획과 실행을 요구한다. 그렇기에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처하는 상황일수록 나무심기 운동은 그 의의를 더해 나갈 것이다.

②사업주체의 합의

겨레사랑과 북한 측이 실무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③사업의 내용

첫째, 2013년부터 2026년까지 12년간에 걸쳐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의 대도시 인근에 1억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둘째, 조림된 지역은 산림조림확인서를 발급하고 겨레사랑숲 이라 명명한다.

셋째, 북한 당국은 종자, 묘목, 설비, 자재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과 실무적 수속사업들을 보장한다.

넷째, 관련된 인원들의 초청, 출입국 및 국내출장에 관한 편의, 수속 및 허가를 보장한다.

다섯째, 한국정부와 해외동포의 지원을 받는다.

여섯째, CBS와 공동캠페인을 행한다.

④사업의 전개방법

첫째, 나무 한 그릇 1불 운동

기본적인 산림녹화운동으로 1인당 1불을 통하여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운동이다.

둘째, 작은 숲 만들기(5천~ 1만불)

교회나 단체들이 일정한 지역을 맡아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어 적은 숲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셋째, 큰 숲 만들기(1만불 이상)

대 도시 인근의 지역을 도맡아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어 큰 숲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4)단기선교 방문단 운영

사단법인 겨레사랑 미주 본부에서 2014년도 여름 하절기 북한 단기선교 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선교단체는 오랫동안 북한지역을 선교해왔으며 금년에는 아래와 같이 본 선교회가 특별 프로그램으로 단기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 Package (4박 5일)

1일차: 중국 출발, 평양 도착.

2일차 : 평양 시내(토마스 선교사 순교지, 장대현 교회터, 모란봉 을밀대, 평양지하철 역,북새리, 창전거리, 평양 옥류관, 대동강 유람 등)

3일차 : 특정 A지역 (탁아소, 유치원, 고아원/육아원, 애육원, 진료소/병원)

4일차 : 특정 B 지역(민속촌, 묘향산)

5일차 : 평양출발 한국 도착. 혹은 미국으로

B Package (5박 6일)

1일차: 중국 출발, 평양 도착.

2일차 : 평양 시내(토마스 선교사 순교지, 장대현 교회터, 모란봉 을밀대, 평양지하철 역,북새리, 창전거리, 평양 옥류관, 대동강 유람 등)

3일차 : 특정 A지역 (탁아소, 유치원, 고아원/육아원, 애육원, 진료소/병원)

4일차 : 특정 B 지역(원산,통천, 금강산 1박2일))

5일차 : 특정 B 지역(금강산에서 평양으로)

6일차 : 평양출발 한국 도착. 혹은 미국으로

C Package (5박 6일)

1일차: 중국 출발, 평양 도착.

2일차 : 평양 시내(토마스 선교사 순교지, 장대현 교회터, 모란봉 을밀대, 평양지하철 역,북새리, 창전거리, 평양 옥류관, 대동강 유람 등)

3일차 : 특정 A지역 (탁아소, 유치원, 고아원/육아원, 애육원, 진료소/병원)

4일차 : 특정 B 지역(백두산, 삼지연, 무산, 대홍단, 이명수 폭포,베개봉 호텔 1박)

5일차 : 특정 B 지역(백두산, 평양으로)

6일차 : 평양출발 한국 도착. 혹은 미국으로

5)기타 사업

(1) 와서 조반 먹으라(영양제,분유전달) 사업계획 작성

①사업명: "와서 조반 먹으라"

②사업개요

프로그램 목적: 북한 어린이 3분의 일 이상이 극심한 기아선상에 놓여있다. 배고픔으로 영양결핍에 놓여있는 어린이들에게 조반을 먹이자는 것이다. "조반 먹으라"는 갈릴리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치고 힘들어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기와 불을 준비해 주시고 와서 조반 먹으라고 하셨다. 이제 우리가 먹일 차례이다.

프로그램 기간:년중 무휴

프로그램 내용:영양제와 분유 전달하기

프로그램 대상:황해도 육아원

프로그램의 효과:

생후 0~12개월의 어린이들에게는 어머니의 수유를 기대 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분유를 통하여 하루 한번 이라도 충족하게 먹게 할 수 있다.

2-7세의 어린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영양제를 통하여 일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후에 빵등이 그들에게 조반을 먹듯 기쁨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③사업의 필요성

갓 태어났을 때부터 일곱 살 사이에 인간의 뇌의 95%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영양분을 꼭 섭취하여야 한다. 이 영양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평생을 지능발달은 물론 신체발달 그리고 성격발달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는 북한 아동의 영양실조와 그로 인한 유아 사망률 증가, 아동 의료 예산 감소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미국 국가 정보 위원회(NIC)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아동의 절반이상이 저신장 저체중 상태이며, 청년층의 3분의 2가 영양실조나 신혈을 앓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별히 황해도 지역의 육아원(갓 태어난 아이들로부터 3세까지) 와 애육원(3세부터 7세까지)은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부족한 편입니다.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온몸에 부스러기와 거스름이 많고 특히 머리에 기계충과 종기가 많아서 사내아이들은 머리를 박박 빈 모습으로 지내는데 충분한 영양의 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생우유를 생산하는 젖소가 부족하고 또한 유통과정에서 냉장차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생후 0~12개월의 영아들은 분유섭취만으로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충족 시켜야 하므로 분유를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프로그램 목적 : 현재 북한에는 120여 만 명의 결핵환자들이 있으며, 그 중 30여 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결핵으로 죽음의 위기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 내 보건 문제 1.2.3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결핵이다. 특별히 결핵은 호흡을 통하여 옮기기 때문에 다른 질병보다 위험하다. 겨레사랑이 운영하고

있는 동평양 제약공장에서 직접 생산할 경우 일인당 치료비는 월 30불 정도이며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고 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하셨다. 다시 사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3)사랑의 4F 운동

①제안동기

6.25의 사건은 민족의 아픔 상처이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는 길 밖에 없다. 우리는 사랑을 갖고 서로의 가슴속으로 진격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만 붙들고 아파하지 말고 용서하고 잊어버리되 영원히 잊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해야한다. 사랑의 시작은 수고로움의 시작으로 시작된다. 아주 작은 일부터 사랑하길 원한다. 배고파하고 병든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제라도 내 것을 나누어야 한다. 보아스의 밭에 이삭이 남겨지듯, 우리도 남겨야 한다. 그들도 함께 웃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②표어

앞으로(forward) 잘못된 것은 잊어버리고(forget) 서로 용서하되(forgive) 영원히 한다(forever)

③용서함을 나타내기

용서는 이삭이 야곱을 용서하듯,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듯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듯 우리는 껴안고 함께 울며 용서를 하고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운동이 필요하다. 나의 힘으로 용서한다 하여도 잊어 버려지지 아니하고 영원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④기도에 동참하는 방법

먼저 ARS전화를 한다.*060-700-1530

이것은 북한 어린이를 위한 영양제 10일분이 된다.

5. 앙케이트 조사결사

본 앙케이트 조사는 미국인 100명과 한국인 200명 총 300명에게 자료를 나눠주고 실시한 결과물로 그 중에서 260명이 조사에 응하여 답해 주었다.

1) 일반적인 개요

(1) 성별

①남 85명, ②여자 175명

(2) 연령층

①20~30대 18명 ②30~40대 20명 ③40~50대 40명 ④50~60대 70명

⑤60대 이상:112명

(3) 현재 거주하는 지역

①한국 170명 ②미국(동부) 40명 ③미국(중부) ④미국(서부) 50명 ⑤기타

(4) 북한에 다녀오신 경험은?

①전혀없다 250명 ②1~2번 정도 10명 ③3~4번 정도 ④여러 번 ⑤기타

(5) 북한에 다녀오실 생각은?

①가볼 생각이 전혀 없다 20명 ②꼭 가보고 싶다 40명 ③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200명 ④기타

2) 북한에 대하여

(1) 본인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①아주 많다 120명 ②약간 있다 10명 ③그저 그렇다 100명 ④별로 없다 25명

⑤전혀 없다 5명

(2)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

①조금안다 110명 ②많이 알고 있다 20명 ③잘 모른다 98명 ④전혀 모른다 32명

(3) 북한의 존재에 대한 생각

①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존재이다 207명 ②잘 모르겠다 2명 ③ 무관하다 98명

④별개의 존재이다 43명

(4) 잘 알고 있는 북한의 상황(분야)

①정치 107명 ②경제 50명 ③사회.문화 30명 ④종교 73명

(5) 우리나라 민족 분단의 원인

①이념의 대립 117명 ②(구)소련의 야심 10명 ③미국의 야심 20명 ④기타 113명

(6) 북한 장래에 대한 전망

①그럭저럭 생존할 것이다 73명 ②급변 상황으로 발전한다 148명

③개혁개방으로 발전할것이다 39명 ④기타

(7) 북한하면 생각나는 단어

①공산주의와 같은 단어 75명

②기아, 어려운 경제, 꽃제비 등과 같은 경제난의 현실 67명

③금강산, 북한언어, 북한말 등과 같은 문화적인 요소 30명

④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48명

⑤서해교전, 총, 폭탄, 6.25전쟁 40명

3) 북한지원에 대하여

(1) 지원에 대한 관심도

①매우많다 43명 ②많다 78명 ③그저그렇다 49명 ④별로 없다 88명

⑤전혀없다 82명

(2) 지원의 필요성

①꼭 지원 되어야 한다 35명 ②하면 좋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21명 ③ 관심없다 104명 ④기타

(3) 지원해야 하는 이유

①전쟁불안해소 3명 ②인도적인 입장에서 179명 ③같은 민족이므로 32명

④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기에 3명 ⑤자연재해가 많기에 43명

(4)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

①공산주의가 싫어서 47명 ②북한이 싫어서 89명 ③북한이 침략자라서 1명

④지원의 끝이 안 보이기에 122명 ⑤변화가 싫어서 1명

(5) 지원의 우선순위는

①의약품 35명 ②식량지원 203명 ③산림녹화 12명 ④기간시설(도로, 전기, 수도 등) 10명 ⑤기타

(6) 지원하는 방식에 대하여

①통일 후를 대비하면서 점진적으로 165명 ②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빠를수록 48명 ③지원받는 것을 보아가면서 30명 ④기타 17명

(7) 지원해 준 결과에 대하여

①현재와 비슷할 것 79명 ②대체로 어려워질 것 45명 ③대체로 나아질 것이다 83명 ④매우 나아질 것 25명 ⑤매우 어려워질 것 12명

(8) 지원해주면서 생기는 의문은?

①제대로 지원되는지 112명 ②다른 곳으로 유용하지 않는지 60명

③고위층만 배부르게 하는지 88명 ④기타

(9) 지원하면서 갖는 병행된 생각은?(기독교인 대상)

①그리스도인으로 변화 되었으면 140명 ②북한주민이 정말 행복했으면 70명

③다른 생각ㅇ르 하지 않았으면 50명 ④기타

(10)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①지식분야 43명 ②의료(20).교육분야(30) 50명 ③종교분야 78명

④ 농업(10명).산림녹화분야(10명) 20명 ⑤경제분야 50명

(11) 북한지원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교육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

①책(10).메스컴(98) 108명 ②교회 25명 ③외부자료 30명 ④인터넷 45명

⑤기타 50명

(12) 북한지원을 위한 나의 노력정도

①매우 노력함 20명 ②조금 노력함 30명 ③그저 그렇다 182명

④노력 안한다 15명 ⑤전혀 안한다 17명

(13) 계속해서 지원해야하는 분야는?

①종교분야 10명 ②일반구호분야 175명 ③복지분야 20명 ④농업분야 10명

⑤보건의료분야 45명

(14) 지원에 대한 투명성중 중요한 부분은?

①구매,수송,인도,분배 10명 ②직접전달 190명 ③사후확인 40명 ④기타 20명

(15) 귀하가 알고 있는 지원품목을 항목별로 전부 나열한다면

①식량 - 쌀(111명).밀가루(109명).옥수수(100명).라면(65명)

②농업 - 비료(70명).농업용비닐(40명).감자(20명).차량(14명)

③보건의료 - 분유(150명).의약품(89명).방역(5명).의료시설(90명)

④난방 - 연탄(12명).나무(42명).내의(43명).담요(10명)

⑤일반구호 - 학용품(35명).설탕(89명).한우(20명).식용유(14명)

Ⅴ. 과제 평가(Project Evaluation)

지금까지의 사역을 통하여 몇 가지의 평가를 얻게 되었다. 이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인 동시에 나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내린 평가이다. 평가의 방법은 인터뷰와 나타난 현상과 그들이 준 글 그리고 경험 등을 토대로 하였다.

1. 민족동질성 반응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혜택을 받은 주민들은 신분이 외국적인 사람이라 하여도 실질적으로 같은 민족이 자기들을 돕고 있다고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있던 남한에 있던 우리들의 동포라는 것에 큰 기쁨을 갖고 있다. 주민들을 하나하나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한 번에 끝이 나는 사역이 아니라 계속적인 식량, 분유, 의약품지원 등으로 자주 만나게 되고, 필요한 물건등을 공급해 줌으로써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것이다.

2. 지역 방문

진료소 운동은 그들이 지정해준 산간벽지까지 깊숙이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지역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생활에 이르기까지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간접경험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 경험했던 것을 평가하기에 나름 전문성을 가진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람은 본만큼 실제 경험한 만큼 생각하고 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지원현장의 투명함

지원하는 내역을 투명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의료소모품등이 계속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한 것에 대한 확인은 물론 사용처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NGO들이 모니터링의 예를 먹는 이유도 투명성에 대한 결여 때문이다. 그러나 진료소지원은 건물이 들어서고 의료기자재들이 분명히 있고, 약을 먹고 치료 받은 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다.

4. 치유와 돌봄의 현장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지원을 그치지 아니하고 치료와 교육을 위하여 찾아가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주민은 물론 의료 종사자들까지 감사와 돌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그림 27,28> 불안한 모습이 안도와 감사의 얼굴로 변함

5. 선교의 기초

진료소를 지원하는 곳은 대부분 교회이다. 이는 그들에게 선교의 최종목적이 있는 것이다. 나성 교회가 지원했다면 진료소의 이름은 월당리 나성진료소가 된다. 이는 그 교회가 북한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듯 지원하고 관계를 맺어 간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나성을 잊지 않게 되고, 계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언젠가 지역 선교에 있어 큰 몫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6. 복음전파와 실천

진료소가 세워진 해당 지역을 방문한 목회자들을 통하여 감사의 기도가 진행되고, 약품을 전달할 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느끼게 되고 또 지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된다. 아팠을 때 돌아보는 부끄럽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몸과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문제까지 치유하고 돌봄으로써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보람을 갖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된다.

Ⅵ. 목회자의 유능성 개발(Personal Evaluation)

1. 리더십

최근 교계 내에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목회자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심지어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이 목회자 리더십의 부재로 꼽히고 있어 그 원인과 대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3 년 2 월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교단지인 한국성결신문사는 2 월 1 일부터 19 일 동안 교단 목회자 및 평신도를 대상으로 총 385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계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의 성장둔화 및 정체현상으로 29.7%를 나타내었고, 두 번째로는 목회자 및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로 18.9%를 차지해 목회자에 대한 리더십 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123]

외국의 리더십이나 경영에 관한 책을 보면 빠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다. 바로 나폴레옹의 지도력에 대한 얘기다. 나폴레옹 장군은 부하들에게 자신의 지휘봉을 넣고 다니게 하며 지휘관의 역할을 훈련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래서 부하라고 해서 마냥 상관의 명령대로만 하지 말고 지휘관의 관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취지에서였단다. 그만큼 부하를 전쟁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생각하여 평소에 지휘역량을 기르도록 한 나폴레옹 장군의 지혜는 요즘 같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리더십이란 말을 많이 쓴다. 그러나 진정 그 리더십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아해 질 때가 많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교회, 직장, 사회 나아가 국가에 이르기까지 리더십이란 주어진 조직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결속시켜 화합을 이끌어내는 역량을 의미한다.

---

[123]http//blog.daum.net/edu_designer/8035024/02.15.2012.

1)시행계획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리더가 필요하다. 특히 교회는 더더욱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서 어떻게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개발을 위하여 먼저는 독서할 책을 두 권을 정하여 일주일에 한 권씩 2 주에 걸쳐서 읽을 계획이다. 그리고 한 주간의 독서가 끝나면 독후감을 A4 한 장정도 요약하고, 느낀 점과 적용을 첨부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일주일 후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독후감을 중심으로 책 내용을 점검하고 서로 토론 하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그 결과를 중심으로 리더십 개발을 위하여 30 분씩 1 주일에 두 명씩, 겨레사랑 직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밝히하는 것이다.

2)독서계획

<표 17> 리더십을 위한 독서계획

도서명	내용소개	일정	레포트
마음으로 리드하라 (저자:류지성)	“마음으로 리드하라”는 부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 리더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다양한 경영심리를 다루었다. 이 책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조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정의 내리기는 숩지 않은 다양한 심리적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리더십에 대해 고민한다. 이를 통해 리더십에 대한 균형 잡힌시각을 갖게 해준다.	2013 년 3 월 6 일-12 일	독후감 느낀점 결단적용 A4 2 장
서울대 리더십강의 (저자: 김광웅)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는 “서울대 리더십 강의” 이 책은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리더가 아닌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리더가	2013 년 3 월 20 일-26 일	독후감 느낀점 결단적용 A4 2 장

	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서울대학교에서 20 여 년간 리더십에 대해 강의해 온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자신을 비우고, 의심하며 여유롭고 천천히 사랑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어 치부와 억압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봉사하기 위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길러준다.		

3)시행결과

두 권의 책을 읽고 책의 전체적인 내용과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 후, 30 분 정도의 주요안건을 가지고 리더십을 실제로 발휘해 보았다. 그런 후에 결과를 놓고 서로 토론을 해본 결과 대북지원을 통한 돌봄과 치유사역은 리더십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단순한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을 통한 Servant Leadership 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시행을 통하여 본 연구자는 이렇게 해 볼 것이다. 단순이 말만 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

2. 섬김

섬김이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수평적 사랑의 실천이다.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도 중요하다. 세상은 이 섬김의 가치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섬기지만 주님은 가장 높으시고 크신 분이지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마태복음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참된 섬김은 다른 사람 밑에서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그 사람과 같이 되어서 도와주는 것이다. 아이들이 앉아서 피리를 불 때 춤을 추지 않고' 아이들이 곡을 하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처럼 되지 않은 것이고 섬기지 않는 것이다.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였다. 주님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사람처럼 되셨고, 죄인을 섬기기 위해 죄인의 친구가 되셨으며 죽음 앞에선 인류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섬기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보다 못났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사랑함으로 그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대북지원은 사실상 어렵다.

1)시행계획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섬기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서 어떻게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개발을 위하여 먼저는 독서할 책을 두 권을 정해고, 일주일에 한 권씩 2 주에 걸쳐서 역시 읽는 것이다. 한 주간의 독서가 끝나면 독후감을 A4 한장정도 요약하고, 느낀 점과 적용과 결단을 꼭 써도록 하겠다. 그리고 북녘의 형제들에게 적용하는 마음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섬김의 자세를 토론하고 실제적으로 세족식을 통해서 실천해 볼 것이다.

2)독서계획

<표 18> 섬김을 위한 독서계획

도서명	내용소개	일정	레포트
섬김 저자:빌하이벨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의 “섬김” 평신도가 깨어나고 교회가 재능을	2013 년 4 월 5 일-11 일	독후감 느낀점

	바쳐 헌신한 평신도들의 이야기를 통해 평신도 사역의 위대한 힘을 느끼게 해준다. 실제 인물이 전해주는 생생한 제험으로 우리의 영성에 자극과 도전을 주며, 교회가 해 줄 일을 바라지 않고, 교회를 위해 할 일을 찾기 위해 움직이도록 이끌고 있다.		결단적용 A4 2 장
행복한교회 저자:김병태	교인이 하나가 되고 감동과 은혜를 누리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지침서 "행복한 교회" 김병태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저자는 위신이 추락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희망이 실현되는 곳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이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직 "섬김"과 "순종"을 실천할 때에만 공동체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모든 교인과 목회자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덕스러운 말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행복의 교회로 쇄신하기 위해 필요한 아홉 가지의 지침을 다양한 일화 속에 녹여 내어 실천적 자세를 함양하도록 이끌어준다.	2013 년 4 월 19 일-25 일	독후감 느낀점 결단적용 A4 2 장

3)시행결과

두 권의 책을 읽고 책의 전체적인 내용과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 후, 세족식을 거행하고 느낀 점에 대하여 발표했다. 모든 연구반원들이 섬김에 대한 토론과 세족식을 통해 느낀 소감을 발표했다. 하나같이 섬김을 통해서 잔잔한 감동과 함께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런 섬김의

자세로 사역현장에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반원들 가정에서도 실습을 하고 섬김의 자세를 몸소 체험을 하며, 가정이 회복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작은 섬김을 통해서 대북지원사업을 통한 돌봄과 치유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3. 인간관계(1:1 커뮤니케이션)

영적인 지도자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 하는”[124] 사람이다. 그러나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 설교와 기도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도, 인간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제대로 된 사역이 이뤄지기란 만무하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이 일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1) 시행계획

본 연구 대북지원을 통한 돌봄과 치유에 관한 접근은 만남 그 자체이다. 그렇기에 인간관계 1:1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단회적인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 선교와 복음전파의 야성을 감추고 사업가로서 북한당국과 만나서 설득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식량과 의료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한다. 달리 말하면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본 연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신뢰이다.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124]개역개정 사도행전 6:4.

2) 독서계획

<표19> 인간관계를 위한 독서계획

<table>
<tr><th>도서명</th><th>내용소개</th><th colspan="2">일정</th></tr>
<tr><td rowspan="2">존 맥스웰의
관계의 기술
(생명의 말씀사)</td><td rowspan="2">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에게서 최선의 것을 뽑아낸다! 리더는 사람들과 일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다. 대인 관계는 리더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리더에게 대인관계가 중요한 것이며, 리더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선의 자원을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td><td rowspan="2">6월1일
~
6월14일</td><td>느낀점
A4,2장</td></tr>
<tr><td>발표장소
교육관</td></tr>
<tr><td rowspan="2">나와 너
(마틴 부버)</td><td rowspan="2">오늘날 사람들은 ‘깨어진 세계’에서 ‘찢기고 또 자기도 찢으면서, 해체되고 또 자기도 그 해체 작업에 한 몫 거들면서 분열되고 또 자기도 분열을 추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td><td rowspan="2">7월1일
~
7월14일</td><td>느낀점
A4,2장</td></tr>
<tr><td>발표장소
교육관</td></tr>
<tr><td rowspan="2">대화의 기술
(풀렛데일)</td><td rowspan="2">'그 때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건데...', '왜 항상 그는 나에게 험담을 늘어놓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런 생각을 하는 독자를 위해 10단계의 변화 프로그램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단순히 방어적이거나 또는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 단호하면서도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대화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td><td rowspan="2">8월1일
~
8월14일</td><td>느낀점
A4,2장</td></tr>
<tr><td>발표장소
교육관</td></tr>
</table>

3) 시행결과

그 동안 남북한 관계계선을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만 생각하고 진전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도리어 소통의 기회로 삼게 되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모습을 자신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 사업가로서 자연스럽게 개인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인간관계 1:1 커뮤니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Ⅶ. 결론

1. 요약

냉전시기 국제사회의 가장 큰 소망은 동서간의 대결이 종식되어 인류가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것이었을 것이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고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종식 되었을 때, 국제사회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오히려 냉전 기간보다 더 많은 분쟁이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발생한 많은 분쟁들은 안보환경의 변화와 안보개념의 확대를 가져왔다. 전통적 의미의 군사안보 이외에 인권, 기아, 마약, 테러, 환경, 난민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

그 결과 유엔을 비롯한 정부 혹은 비정부기구들은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 이슈들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을 전통적 군사안보 위협과 더불어 '포괄적 안보' 문제로 파악함과 동시에 인간의 복지 및 안위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오직 유일하게 분단된 한반도 정세와 장기간 그리고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바로 이웃에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봄과 치유의 대상으로 돌렸던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특별관리를 하셨다.

신명기10:18-19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시편68:5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도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를 지

원하는 사건들이 행6:1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늘날 북한 주민의 실상은 비참함 그 자체이다. 어쩌면 굶주림 속에 유기되어 삶과 죽음이 늘 가까이 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 일컫는 대량 아사사태를 겪은 북한은, 거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다. 반면 한국은 음식이 남아서 연간 음식물 처리비용이 수조원대에 이른다. 북한의 왜곡된 세계관의 근원은 한국 전쟁의 피해에서 체험된 상한마음으로 용서 하지 않는 마음에서 근거하여 미국에 대한 적개심과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으로 발전 되었다. 상한마음으로서의 적개심은 북한 사회의 발전과 위기로 넘어오면서 더욱 심화 확대되었다. 적개심의 표현방식이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학습된 분노를 갖게 되었다.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이념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단절되어 버렸다. 이렇게 상한 마음들이 사회전반에 걸쳐 남한에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어쩌면 굶주린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기독교인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끌어 안아야 할 나그네인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마25:43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다 본 연구자는 물 한그릇 소자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북지원 사업에 뛰어들었다. 크리스챤의 신분과 사업가로서 대북지원을 하지만 이 사역의 중심에는 한 영혼에 대한 돌봄과 치유하심이 간절하다. 달리 말하면 목회적 돌봄과 치유를 성서적관점, 사회심리적관점,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문적인 이론으로 기초를 놓았다. 특히 사단법인 겨레사랑 활동에 기반을 두고 대북사업의 목회적 돌봄과 치유사역에 접근을 시도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들어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민간차원에서 대북지원의 힘은 미약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돌봄과 치유가 일어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북한주민들이 처해있는 인도적 위기상황의 극복보다 여전히 선군정치에 더욱 치중하고 있는 북한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난만으로 북한의 식량난과 인권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북한과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대화와 협력의 방식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보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북지원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도 북한주민의 인간으로서 가장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 말로 글로벌 시대의 국제사회의 책무라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겨레사랑 대북지원 사역에 돌봄과 치유라는 뼈대를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 학문적인 기초를 놓게 되어 값진 시간이었다.

2. 제언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대북지원을 통한 돌봄과 치유에 관한 접근은 정부의 대북 정책 변천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대북 포용정책이었다. 6.15 이후 적극적인 대북정책의 추진으로 대북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민간의 인도지원도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은 NGO의 활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본 연구자는 오랫동안 부지런히 대북지원의 현장을 뛰어다니며 나눔의 정신이 곧 성경적인 원리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했다. 무엇보다 미약하나마 돌봄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서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의미를 더 잘 깨닫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부차적으로 이 사역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합과 이사벨이 버

티고 있는 적진 한복판에서 가난한 과부의 집에 얹혀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적진 속으로 뛰어 들어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한다.(왕상18:1) 이처럼 대북지원 사역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실천이기도 하다. 선지자적인 야성을 가지고 위험한 사역현장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도 이념의 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강경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민간단체를 통해서 대북지원의 손길을 뻗쳤다는 것이 이를 가능케 했다. 남북관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남북협력, 이산가족이나 금강산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등과 같은 정부차원의 교류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시한부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남측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정치적 거래에 의한 대가라고 판단한다. 어쩌면 서로가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Although they work together, they each have different purposes.) 본 연구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북지원을 통해 정치.경제.종교적인 면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 때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유의할 것은 정부가 대북 지원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오해나 북한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인도적인 지원을 받는 그 자체를 ‘수혜’가 아니라 ‘시혜’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보건과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공장이나 농장건설 또는 농촌개발 같은 프로젝트 협력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 경제 재건을 염두에 둔 북한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포괄적인 범주의 인도지원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경협사업과 구분이 모호하여 NGO의 인도주의

적 순수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또 자칫 시장경제를 경험하지 못한 북한에서는 이를 오해하여 남한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이와 반대로 북한에서 경협에 종사하는 남한 기업에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마찰을 피하기 위해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면 궁극적으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인도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NGO들에게도 선의의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정부, 기업, NGO의 분명한 역할분담이 되어야 하며, 가급적 인도 지원은 NGO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그간의 대북 지원이 많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일부에서 '퍼주기 시비'를 사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원칙 대북지원정책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북한주민 돕기 운동은 그 동안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북한주민들에게 동포애와 평화 의지를 밑바닥부터 전달하여 인적 교류의 광범위한 확대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매개해냄으로써 상호간 이해증진과 적대심 해소 등 평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대북 지원은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여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돌봄과 치유사역을 위해서는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음을 본 연구과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증명한다.

Ⅷ. 참고문헌(Bibliography)

1. 동양서적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서울: 민족문화사, 1988.

김병로 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김양선. *한국 기독교 해방 100사.* 서울: 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원, 1956.

김영규. *기독교교육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김요한. *주존 웨슬리 신학과 성서교육 모델.* 서울: 샬롬출판사, 1997.

김지찬. *언어의 직공이 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김진두. *우리의 교리.* 서울: 도서출판 감신, 2009.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남북평화통일연구소. *오늘의 북한.* 서울: 남북평화통일연구소, 1988.

명성훈. *뒷문을 막아라.* 서울: 크레도, 2000.

민경배. *한국의 기독교회사.*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68.

______. *북한의 기독교.* 서울: 국토통일원, 1979.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주민의 가치체계.*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박일룡. *남북통일과 북한교회의 재건.*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1993.

서정복. *프랑스혁명.* 파주: 도서출판 살림, 2007.

손윤탁. *교회성장의 지름길.* 서울: 성지, 1997.

유성준. *세이비어교회*. 서울: 평단문화사, 2012.

윤경호. *105인 사건과 기독교수단 한국기독교와 민중운동*. 서울: 보성출판사, 1986.

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읽기*. 서울: 세창출판사, 2013.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______. *웨슬리 신학의 탐구,*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______.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임성빈 외. *통합적인 통일과 그리스도인들의 과제 Ⅱ*.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전현준 외. *북한 이해의 길잡이*. 서울: 박영사, 2005.

정성욱. *스피드 조직신학*. 서울: 홍성사, 2007.

조정남. *요한 웨슬레 설교 선집*. 서울: 도서출판 서로사랑, 1998.

최민수. *목회상담과 돌봄*. 서울: 그리심, 2008.

2. 번역서적

Adolf V. Harnack. *기독교의 본질*. 오흥명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Alister Mcgrath. *기독교교리이해*. 정진오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Charles W. Carter. *현대 웨슬리 신학III*, 박은규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C. B. Eavey. *기독교 교육사*. 김근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2.

Emil Brunner. *정의와 사회질서*. 전택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Friedrich Schleiermacher. *기독교신앙*. 최신한 역. 파주: 도서출판 한길사, 2006.

James Huntley. Grayson. *한국종교사*. 강돈구 역. 서울:민족사, 1995.

James W. Fowler. *Stages of Faith*. 이재은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J. D. Smart.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John Brockman. *위험한 생각들*. 이영기 역. 서울: 갤리온, 2007.

John MacArthur. *성경의 핵심을 꿰뚫어라*. 전의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Jürgen Moltmann.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곽미숙 역. 서울: 도서출판동연, 2009.

______________. *신학의 방법과 형식*.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______________. *희망의 윤리*. 곽혜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Justo L. Gonzalez. *간추린 기독교 교리사*. 이후정 역. 서울: 컨콜디아사, 2010.

Karl Barth. *교의학개요 사도신경해설*. 신경수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7.

Martin Heidegger. *이정표*. 이선일 역.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Mike Bickle. *예언 사역의 여정*. 박선규 역. 경기 고양: New Wine, 2007.

Nicholas Thomas Wright. *나를 따르라*. 이혜진역. 파주: 살림출판사, 2008.

Noro yosio. *죤 웨슬리의 생애와 사상*. 김덕순 역. 서울: 기독교감리회홍보출판국, 1993.

Paul Tillich. *그리스도교 사상사*. 송기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__________. *조직신학IV 성령론*. 유장환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8.

Paul Washer. *복음*.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Richard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Robert W. Burtner & Robert E. Chiles. *A Compend of Wesley's Theology*. 김운기 역. 서울: 도서출판 전망사, 1988.

Ronald Sider.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 김선일 역. 서울: IVP, 1997.

Waylon. B. Moore. *신약성서적 새가족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2.

William Barclay. *사도행전*. 정혁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4.

___________.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윤리*. 문시영 역. 파주: 도서출판살림, 2003.

William R. Cannon. *웨슬리 신학*. 남기철 역. 서울: 기독교 감리회 교육국, 1986.

Williams Collin. *존 웨슬리 신학*. 이계준 역. 서울: 전망사, 1990.

노로 요시오. *존 웨슬리의 생애와 사상*. 김덕순 역. 서울: 기독교 감리회 홍보출판국, 1993.

3. 원서자료

Alasdair I. C. Heron. *The Holy Spiri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6.

Bruce D. Marshall. *Trinity and Truth*.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Catherine Keller. Michael Nausner. Mayra Rivera. *Postcolonial Theologies: Divinity and Empire*. St. Louis: chalice Press, 2004.

Catherine Mowry LaCugna. *God For Us: The Trinity and Christian Life*.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1.

Dale T. Irvin. *Christian Histories. Christian Traditioning*. MaryKnoll: Orbis Books, 1998.

Daniel Suh. *The Kingdom of God*. Seoul: Korean Church Growth News, 2008.

Delores S. Williams. *Sisters in the Wilderness*. Maryknoll: Orbis Books, 2013.

Dietrich Bonhoeffer. *Ethics: Dietrich Bonhoeffer's Works, vol. 6*. ed by Clifford J. Gree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5.

D. M. Bailie. *God was in Christ*. London: Faber and Faber, 1961.

Elizabeth Liebert. *The of Discernment*.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Gary Keiser. *The Kingdom of God*. Seoul: Korean Church Growth News, 2008.

Gregory A. Barker. *Jesus in the World's Faiths*. Maryknoll: Orbis Books, 2005.

Hans Küng. *Credo*.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2.

James W. Fowler. *Stages of Faith*.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8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9.

John Wesley. *The Work of John Wesley*. ed. *Thomas Jackson,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1998.

Jon Sobrino. S.J. *Christology at the Crossroads: a Latin American approach*. Tran by John Drury. NY: Orbis Books, 1978.

Jong Chun Park. *Crawl with God, dance in the spirit*.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Joy Dawson. *Intercession. Thrilling and Fulfilling*. Seattle: YWAM Publishing, 1997.

John D. Zizioulas. *Being As Communion*.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2002.

Jon Sobrino. S.J. *Christology at the Crossroads: a Latin American approach*. Tran by John Drury. NY: Orbis Books, 1978.

John Wesley. *Sermon: The Great AssizeII,1-2, 4, 7, III, 1-2, 5*. Edward H Serene Jones. Paul Lakeland. *Constructive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Karl Barth. *The Humanity of Go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60.

Karl Rahner. *Theological Investigations*. trans. by Kevin Smyth. Baltimore: Helicon Press, 1966.

Michael Weller. *God the Spirit*. tran by John F. Hoffmeyer. Augsburg: Fortress Press, 1994.

Miguel H. Diaz. *On Being Human: U.S. Hispanic and Rahnerian Perspectives*. Mary knoll N.Y: Orbis Books, 2001.

Millard J. Erickson. *The Word Became Flesh*. Grand Rapids: Baker Books, 2000.

Paul Tillich.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8.

Peter C. Hodgson. Robert H. King. *Christian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Peter C. Robert H. King. *Readings in Christian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5.

Richard Kearney. *The God Who May Be: A Hermeneutics of Relig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Rudolf Bultmann. *What is Theolog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ress, 1997.

Saint Augustine. *The Trinity*. ed by Rotelle. John E. Brooklyn: New City Press, 1991.

Serene Jones. Paul Lakeland. *Constructive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Stephen Neil. *Creative Tension*. London: Edinburgh House, 1959.

Sugden. ed. *Wesley's Standard Sermons. 2 vols*. London: Epworth Press, 1921.

Theodore W. Jennings. Jr. *Loyalty to God*. Nashville, Term: Abingdon Press, 1992.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Westminster, MD: Christian Classics, 1981.

Tom Smail. *The Giving Gift* . London: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4.

4. 학술연구자료

동용승. *2008년 북한식량위기 진단과 대북 인도적 지원원칙*. 서울: 평화재단, 2008.

박애리. *Howard Clinebell의 성장상담의 원리와 실천에 관한 연구*. 한세대 박사학위논문, 2008.

우수영. *동북아시아 국가의 사막화 현상이 북한 산림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영향과 통일 후 복구계획.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북한실태*, 2000.

이금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 서울: 평화재단, 2006.

임을출. *국제기구의 북한지원: 현황 평가 및 시사점 북한경제리뷰*. 세종시: KDI, 2008.

5. 참고사이트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http://missionlife.kukinews.com.

기독일보, http://ny.christianitydaily.com.

뉴로하모니, http://www.brain21.kr.

비전스쿨, http://visionschool.fmnc.net.

와이티엔방송, http://www.ytn.co.kr.

인터넷 시민운동, http://cafe.naver.com/civilmovement.cafe.

자연적 교회 성장, http://www.ncdkorea.net.

크리스천헤럴드, http://cafe.naver.com/newsyoun.

한국갤럽, http://panel.gallup.co.kr.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좋은벗들, http://www.goodfriends.or.kr.

Census 2010 Data for States, http://www.cubitplanning.com/census2010.

Ⅸ. Appendices

1. 앙케이트조사 설문지원본

미국 100 한국 200 ~총 300매 → 260매회수

1.일반적인 상항

1)성별(남, 여) 85 / 175

2)연령층

①20~30대 ②30~40대 ③40~50대 ④50~60대 ⑤60대이상

18 20 40 70 112

3)현재 거주하는 지역

①한국 ②미국(동부) ③미국(중부) ④미국(서부) ⑤그외 해외지역

170 40 50

4)북한에 다녀오신 적은?

①전혀없다 ②1~2번 정도 ③3~4번 정도 ④여러 번

250 10

5)북한에 다녀오실 생각은?

①가볼 생각이 없다 ②가보고 싶다 ③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20 40 200

2. 북한에 대하여

1) 본인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①아주많다 ②약간있다 ③그저그렇다 ④별로없다 ⑤전혀없다

120 10 100 25 5

2)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

① 조금안다 ②많이 알고 있다 ③잘 모른다 ④전혀 모른다

110 20 98 32

3) 북한의 존재에 대한 생각

①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존재이다 ②잘 모르겠다 ③무관하다 ④별개의 존재이다

207 2 8 43

4) 잘 알고 있는 북한의 상황(분야)

①정치, ②경제, ③사회, 문화 ④종교

107 50 30 73

5) 우리나라 민족 분단의 원인

①이념의 대립, ②(구)소련의 야심, ③미국의 야심, ④기타

117 10 20 113

6) 북한 장래에 대한 전망

①그럭저럭 생존할 것이다 ②붕괴한다 ③개혁개방으로 발전할 것이다

73 148 39

7) 북한 하면 생각나는 것

①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공산주의와 같은 단어 75

②기아, 어려운 경제, 꽃제비 등과 같은 경제난의 현실 67

③금강산, 북한언어, 북한말 등과 같은 문화적인 요소 30

④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48

⑤서해교전, 총, 폭탄, 6.25전쟁 40

3. 북한지원에 대하여

1) 지원에 대한 관심도

①매우많다 ②많다 ③그저그렇다 ④별로없다 ⑤전혀없다

~~[illegible]~~ 43 78 49 88 82

2) 지원의 필요성
①꼭 지원 되어야 한다 ②하면 좋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③관심없다
35 121 104

3) 지원해야 하는 이유
①전쟁불안해소 ②인도적인 입장에서 ③같은 민족이므로 ④경제대국이기에 ⑤자연재해가 많기에
3 179 32 3 43

4) 지원이 필요 없다면 그 이유
①공산주의가 싫어서 ②북한이 싫어서 ③북한이 침략자라서 ④끝이 안보이기에 ⑤변화가 싫어서
47 89 1 122 1

5) 지원의 우선순위는
①의약품 ②식량지원 ③산림녹화 ④기간시설(도로, 전기,수도등)
35 203 12 10

6) 지원하는 방식에 대하여
①통일 후를 대비하면서 점진적으로 165
②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빠를수록 48
③지원받는 것을 보아가면서 30
④기타 17

7) 지원해 준 결과에 대하여
①현재와 비슷할 것 ②대체로 어려워질 것 ③대체로 나아질 것이다 ④매우 나아질 것 ⑤매우 어려워질 것
79 45 83 25 12

8)지원해주면서 생기는 의문은?
①제대로 지원되는지? ②다른 곳으로 유용하지 않는지 ③고위층만 배부르게 하는지
112 60 88

9)지원하면서 갖는 병행된 생각은?
①그리스도인으로 변화 되었으면 140
②북한주민이 정말 행복했으면 70
③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50

10)내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①지식분야 ②의료분야 ③종교분야 ④교육분야 ⑤산림녹화분야 ⑥농업분야 ⑦경제분야
43 20 78 30 10 10 50

11)북한지원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교육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
①메스컴 ②책 ③교회 ④외부자료 ⑤인터넷 ⑥기타
98 10 25 30 45 50

12)북한지원을 위한 나의 노력정도
①매우노력함 ②조금노력함 ③그저그렇다 ④노력안한다 ⑤전혀안한다
20 30 182 15 17

13)계속해서 지원해야하는 분야는?
①종교분야 ②일반구호분야 ③복지분야 ④농업분야 ⑤보건의료분야
10 ~~[illegible]~~ 175 20 10 45

14)지원에 대한 투명성중 중요한 부분은?
①구매, 수송, 인도, 분배 ②직접전달 ③사후확인 ④노력안한다 ⑤전혀안한다
10 190 40

15)귀하가 알고 있는 지원품목 전부를 찾아보신다면

111 109 100 150 70 43 89 10 14 20
①쌀 ②밀가루 ③옥수수 ④분유 ⑤비료 ⑥내의 ⑦의약품 ⑧담요 ⑨식용유 ⑩한우
⑪설탕 ⑫의료시설⑬농업용비닐 ⑭감자 ⑮라면 ⑯방역 ⑰연탄 ⑱학용품 ⑲나무 ⑳차량
89 90 40 20 65 5 12 35 42 14